

제주대학교박물관 소장유물 도록VI

服飾

제주의 복식

The dress and it's ornament of Jeju

제주의 복식

The dress and its ornaments of Jeju

제주대학교 박물관 도록 VI

제주의 복식

The dress and its ornaments of Jeju

인쇄일 | 2010년 2월 17일

발행일 | 2010년 2월 19일

발행인 | 허향진

발행처 | 제주대학교박물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66

Tel 064-754-2241 Fax 064-702-0645 Homepage museum.jejunu.ac.kr

운영위원 | 김동전(위원장), 최치규, 한성우, 이창익, 허남춘, 현승환, 박현영, 전성수, 박성진, 손일삼

총괄기획편집 | 김동전

원고·편집 | 김동전·장현주

사 진 | 김기삼·김명선

진 행 | 강봉석·고순희·권수연·박눈설미

보조진행 | 김희선·허재형·이규복·김영민·허동근·한은미·김현주

디자인·제작 | 도서출판  (T. 064-725-4410)

ISBN 978-89-6208-029-2 96380

발간사

우리대학교 박물관은 제주도내 유일의 국립 종합대학 박물관으로 1967년 개관한 이래 40여년 간 제주도와 관련된 유물을 꾸준히 수집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수집, 발굴, 보존, 연구하여 온 유물 중에서 복식유물만을 골라 『제주대학교박물관 도록VI-제주의 복식』이라는 이름으로 도록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도는 문화의 보고(寶庫)라 할만큼 제주도의 가옥, 마을, 언어, 음식, 세시풍속 등이 다른 지방과는 현격히 다른 독특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물과 바람, 가뭄의 재앙이 심하다고 하여 삼재(三災)의 섬이라 하였고, 돌과 바람 그리고 여자가 많아 삼다(三多)의 섬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연환경은 제주만의 고유한 문화를 낳았습니다.

제주도의 복식은 자연환경의 영향으로 북방계와 남방계가 혼재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자의 예로는 목자(牧子)들의 피복인 짐승의 털과 가죽을 재료로 한 ‘가죽 두루마기’ 등이 대표적이며, 후자인 남방계로는 해녀복인 ‘물소중이’가 그러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도록발간을 계기로 제주 복식문화에 대한 깊은 연구를 통하여 제주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일조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대학교 박물관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록 발간을 위해 노력해 주신 김동전 관장과 박물관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2010년 2월

제주대학교 총장 허향진

Forward

Since its opening in 1967,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Museum has continued its efforts to collect relics and articles of the past that represent the history of Jeju. A variety of items have been discovered, collected, studied and preserved, by the island's only national university museum. Among them, the items in the category of costume are selected to make this pictorial record book with the title of 『Jeju National University Museum Pictorial Record VI— Jeju's Costume』.

Jeju is known as a cultural treasury for its indigenous and unique culture reflected in the style of houses, villages, dialect, foods, and manners and customs for seasonal celebrations. The island has been called an island of three disasters because of severe suffering from water, wind, and draught. An island of 'three many' also refers to an abundance of stones, wind, and women. The natural environment is a reason for Jeju's unique tradition of difference in costumes and apparel, as well.

Jeju's wearing apparel is characterized as influenced from both northern and southern styles which are mixed and coexist together. The northern influence can be seen from the shepherd's clothing, made of animal fur and leather. The Korean leather topcoat is a good example. The style from southern clime is represented by mulsojungi, a costume for the famed woman divers or Haenyeo.

I sincerely wish that the publication of this pictorial record be part of a contribution to introduce Jeju's culture to a wide audience. I also wish for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Museum to continuously prosper. Finally, I would like to thank Director Kim Dong-Jeon and all the editing staff for their hard work.

February 2010
President Huh Hyang-Jin
Jeju National University

도록 발간에 부쳐

우리대학교 박물관은 그동안 제주지역의 역사, 민속, 미술, 고고 등의 다양한 분야의 전통문화를 수집, 발굴, 연구, 보존, 전시 등의 노력을 통하여 괄목할 연구 성과를 이루어왔습니다. 이 도록은 우리대학교 박물관이 소장한 유물 가운데 복식류(服飾類)만을 추려 선별한 것으로 크게 일상복, 예복, 노동복, 기타 장신구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식류는 그 재질이 직물이기에 보관과 보존에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박물관 독립건물이 없는 관계로 전시실의 항온시설이 아직은 미비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이번에는 복식류를 도록으로 만들어 일반에게 공개해 보고자 제작되었습니다.

제주도는 조선시대 이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등 주변의 여러 나라와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그 문화를 형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고려말 이후에 바닷길이 닫히면서 주변지역과의 활발한 교류는 불가능하였지만, 조선 중앙정부의 목민과 파견이나 유배인의 입도, 혹은 이국인의 표도 등으로 외래 요소가 융합되는 이중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처럼 의생활에 있어서도 제주의 전통복식은 토착민의 생활양식을 기반으로 외래적 요소가 융합되었고, 의례복보다는 노동복 위주의 의생활이 크게 발전하는 특징을 갖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를 빌어 도록 발간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허향진 총장님과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진촬영을 맡아준 김기삼 선생님, 복식유물 정리 및 도록 원고를 작성해 주신 의류학과 장현주 교수님을 비롯한 의류학과 대학원생, 그리고 강봉석 학예원을 비롯한 우리 박물관 식구들, 어려운 여건을 감수하면서 기꺼이 인쇄를 맡아준 도서출판 각 박경훈 사장님에게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2010년 2월

제주대학교 박물관장 김 동 전

Forward to Publication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Museum has made a phenomenal research achievement through the continuous efforts to discover, collect, study, and preserve the traditional cultures of Jeju in a variety of areas to include history, folklore, arts, and antiquities. Among the collections, this pictorial record book contains the category of costumes and apparel with the sub-categories of casual, ceremonial, working costumes, and ornaments. The museum is paying extra attention and effort to preserve costumes and apparel because they are made of cloth materials. Having no designated building for the collections of costume and apparel, the facility lacks in maintaining a steady temperature for an ideal management of the collections. Therefore, we decided to make and publish a pictorial record of such items for the public to view.

Before the Joseon Dynasty, Jeju was an autonomous kingdom, Tamna Kingdom, and actively engaged in exchanges with different kingdoms of the Korean peninsula. Under the regime of the Joseon Dynasty, Jeju became one of the political and regional units under the control of the Royal Court, and issued an order prohibiting any Jeju resident from entering the mainland. This edict left Jeju isolated and made to suffer from the severance of cultural exchanges. A dual structure formed in Jeju's culture from the fusion of the closing of the island and the external influences brought in by the deployed official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or those who were exiled to the island.

Likewise, the traditional costume of Jeju people became a blended style formed from the base of the indigenous people's lifestyle and that of the external influence. It is also characterized as having a more significance in the development of the working costume rather than the ritual costume.

President Huh Hyang-Jin of Jeju National University and all staff members,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support in every aspect to publish this 『Jeju National University Museum Pictorial Record VI—Jeju's Costume』 and, also, for your future efforts in the construction of a new museum building. I would like to thank Mr. Kim Ki-Sam, who willingly took over the responsibility for photography, Professor Jang Hyun-Ju (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s) and the students from the graduate school, Mr. Kang Bong-Seok (Curator of Jeju National University Museum) and other members of Museum. Mr. Park Kyung-Hoon, President of Doseochulpan Gak publishing company, thank you for your kind and willing cooperation despite hard circumstances.

February 2010

Director Kim Dong-Jeon

Jeju National University Museum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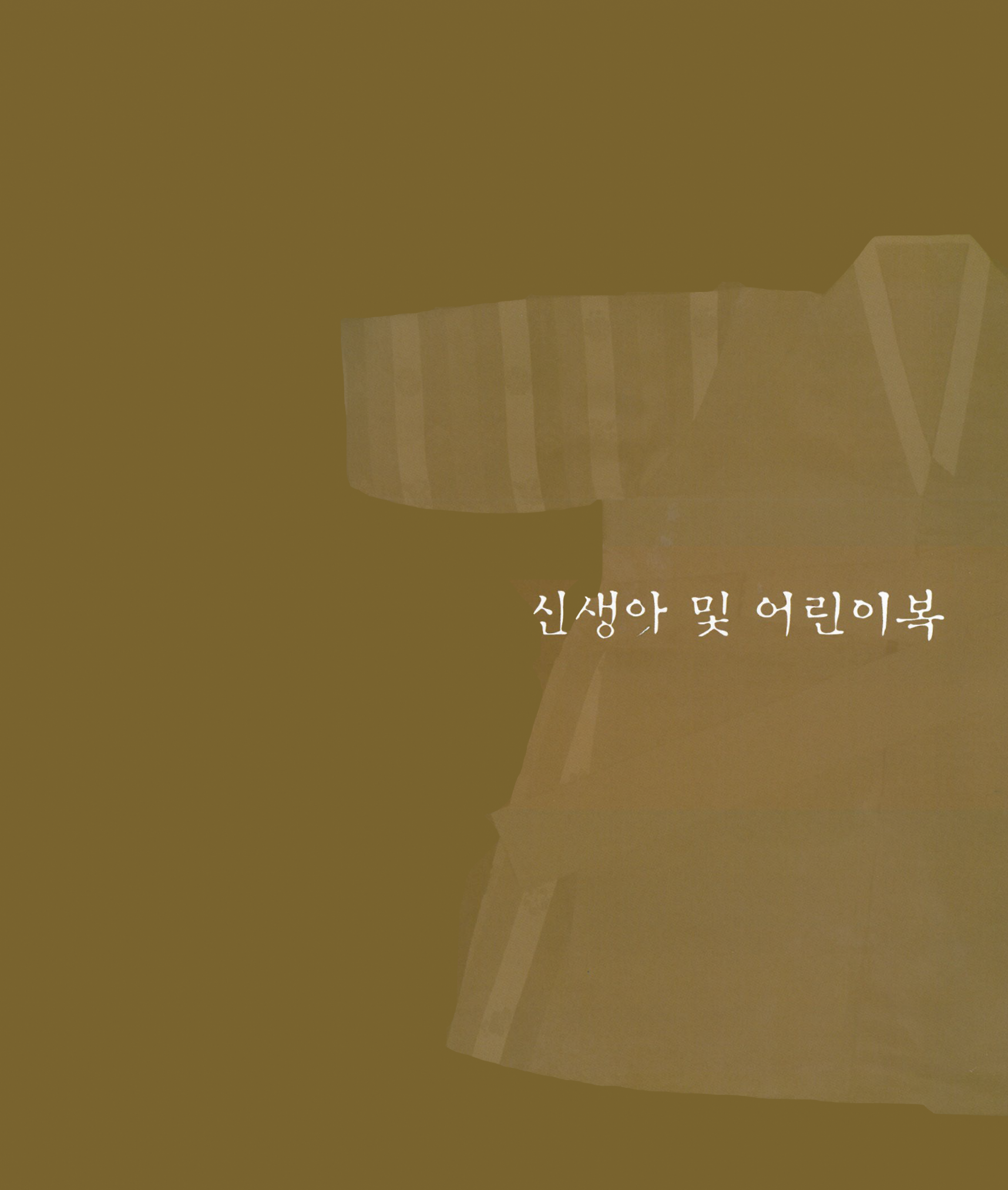
- 003 발간사
- 005 도록 발간에 부쳐
- 008 일러두기
- 009 신생아 및 어린이복
- 029 성인 남자 생활복
- 041 성인 여자 생활복
- 077 혼례복
- 087 상례복
- 097 목자복
- 113 해녀복
- 119 관 · 모
- 137 신발
- 143 장신구
- 159 제주 전통복식에 관한 실증적 고찰 / 장현주

일러두기

- 제주대학교 박물관 소장품 중 복식유물만을 대상으로 삼았으나 일부는 의류학과 소장품이 포함되었다.
- 도판의 설명은 명칭, 치수, 소재, 설명의 순으로 명기하였으며, 유물의 규격은 cm를 기본으로 하였다.
- 도판 수록 순은 일상복, 예복, 노동복, 기타 장신구 순으로 나열하였다.
- 본 도록에 실린 글과 도판은 제주대학교 박물관의 사전 동의 없이는 무단 전재할 수 없습니다.

Introductory remarks

- The publication focuses on only some parts of dress and its ornaments among museum collections. Some of them are from 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s.
- The order of the explanation for collection is name, size, materials, and explanation. The standard unit of collection is centimeter.
- The appearing order of the book is everyday dress, full dress, work clothes, and its ornaments.
- Without permission of the museum, no one are allow to use any contents including pictures in the museum book in line with copyright laws.

The background of the page is a soft, out-of-focus photograph of a baby wearing a white onesie with thin, vertical grey stripes. The baby is positioned in the center-right of the frame, with their head tilted slightly. The overall color palette is warm and muted, with a light beige or cream tone dominating the backgro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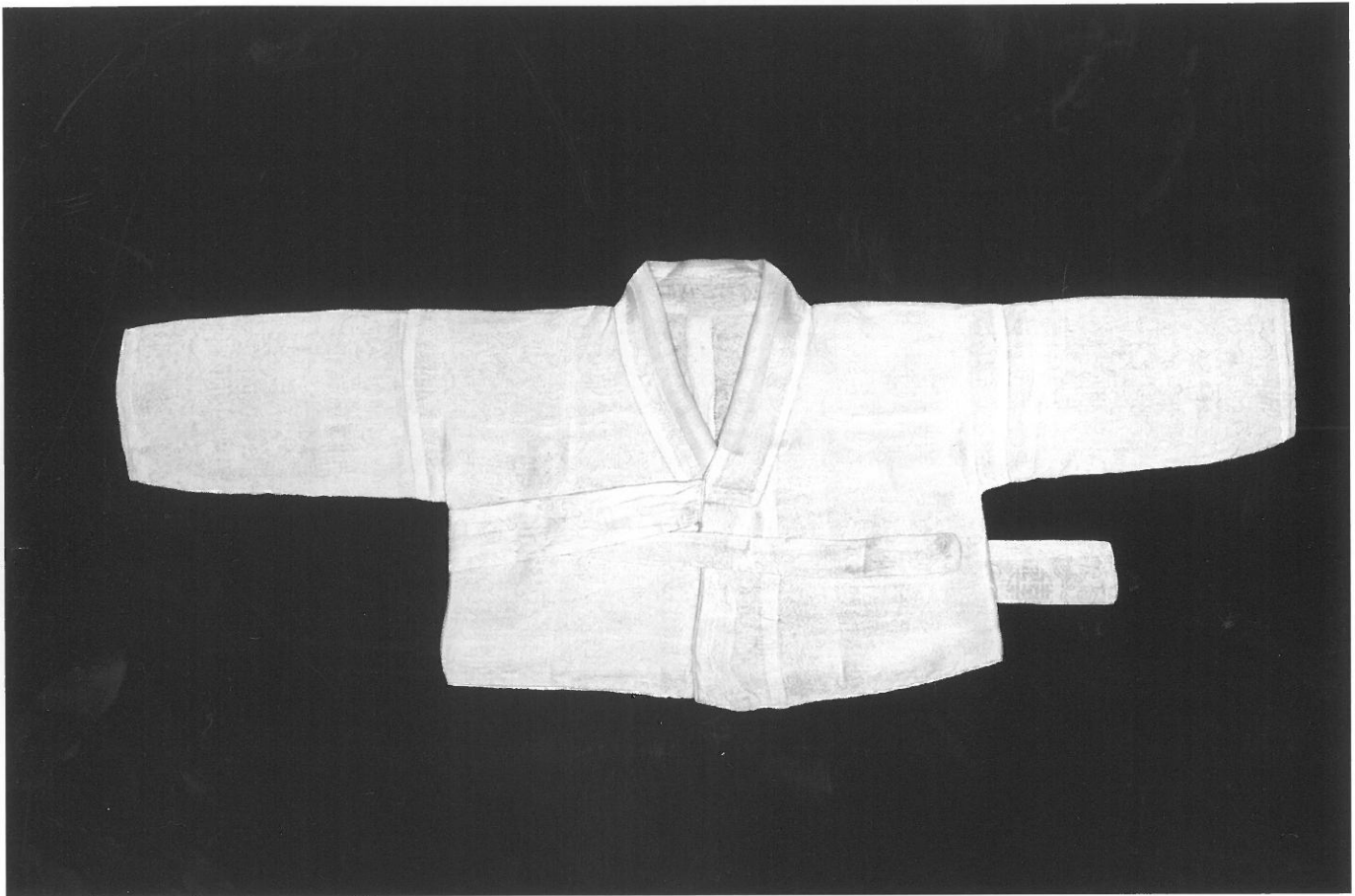
신생아 및 어린이복



봇뒤창옷

길이 32cm
화장 47cm
뒷폭 30cm
소재 삼베(흙)

제주도 전통의 신생아용 베넛저고리
이다.



아기저고리

길이 26cm

화장 36cm

뒷폭 33cm

소재 생고사(항라)

여름용 아기저고리이며 긴 고름으로
아기의 몸을 한번 감싸서 짧은 고름
과 여며진 것으로 추측된다.



아기저고리

길이 29.5cm
화장 36.5cm
뒷폭 33cm
소재 문단(명주)

재봉틀로 바느질한 솜을 둔 아기저고리이다.



아기저고리

길이 31.5cm

화장 43cm

뒷폭 38cm

소재 은사양단(면)

재봉틀로 바느질한 아기저고리이다.



여아 색동저고리(의류학과 소장품)

길이 29.5cm

화장 45cm

뒷폭 35cm

소재 숙고사(사)

섶에 조각천을 이어 장식한 여아용 색동
저고리이다.



여아 색동저고리(의류학과 소장품)

길이 25.5cm
화장 35cm
뒷폭 33cm
소재 양단(인견)

색동천으로 소매, 깃, 섹을 장식한 여
아용 색동저고리이다.



마고자

길이 34cm

화장 43.5cm

뒷폭 41cm

소재 양단(인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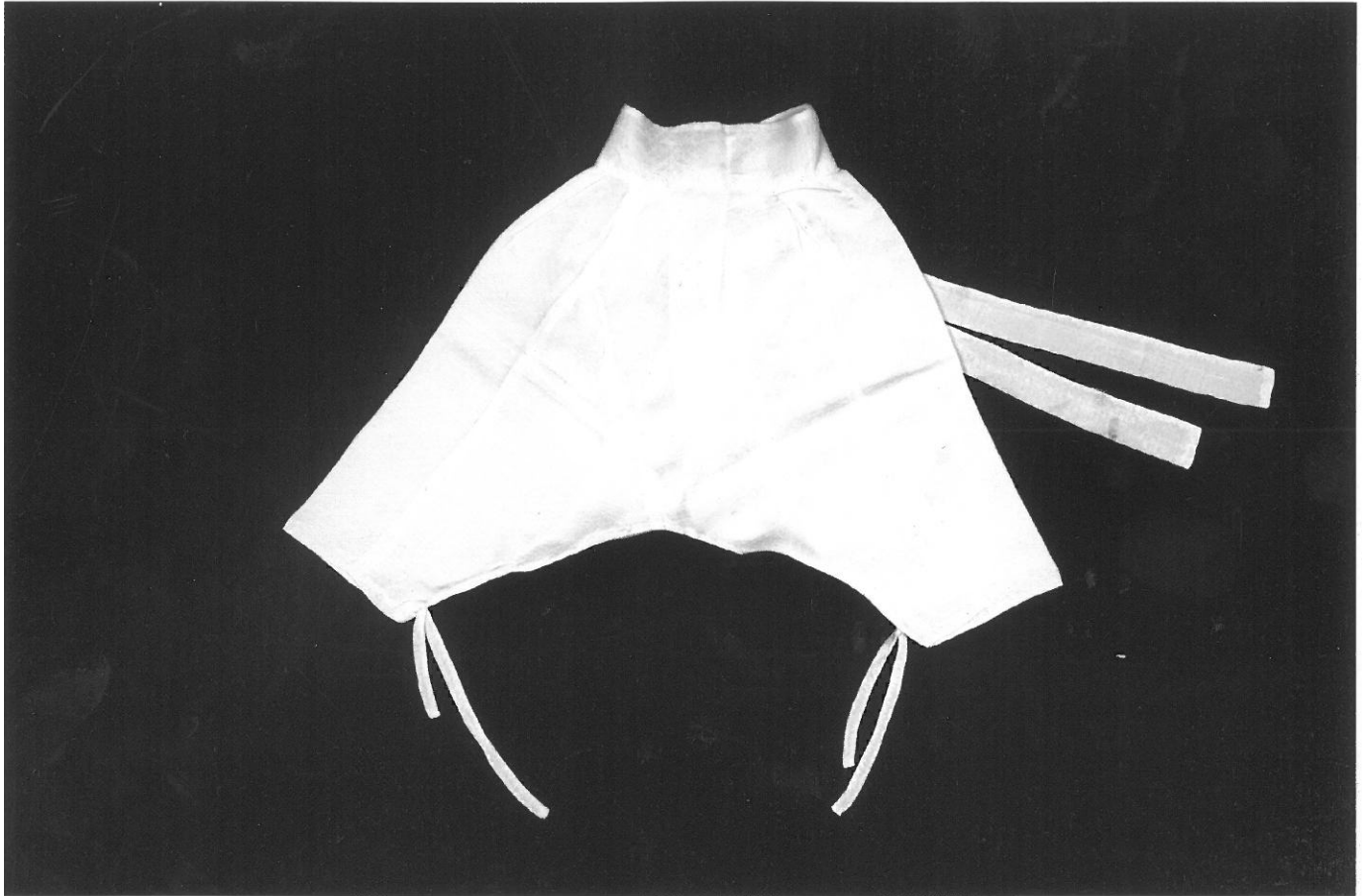
단추로 여미게 된 어린이용 마고자이다.



마고자(의류학과 소장품)

길이 20cm
화장 32cm
뒷폭 29.5cm
소재 사(사)

소매부분에 색동으로 장식하고, 깃과
섶을 이색천으로 만든 어린이용 마고
자이다.



풍차바지(의류학과 소장품)

길이 52cm

허리너비 59cm

소재 합성(인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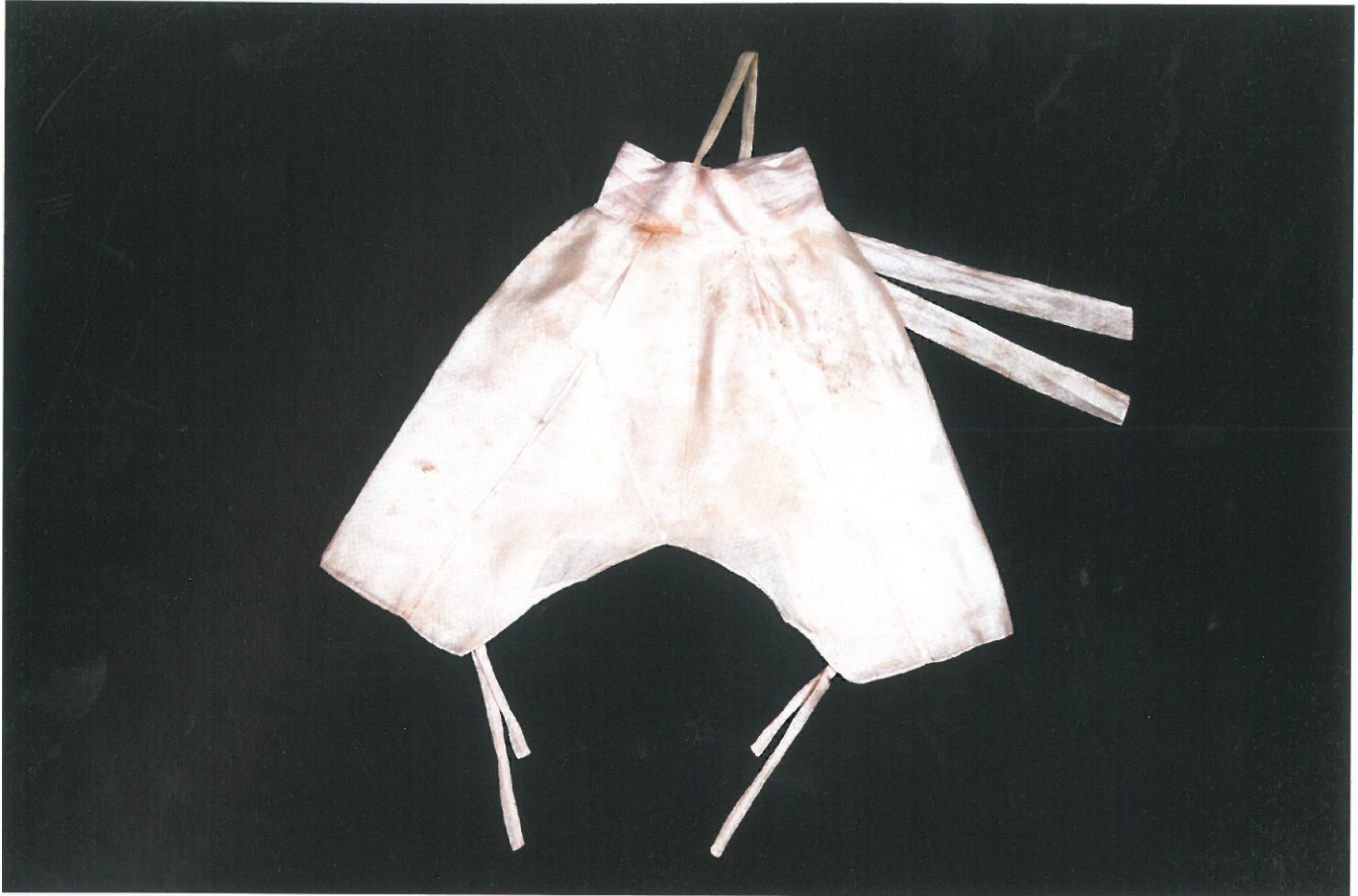
조끼허리가 바지에 붙어 있지 않으며
뒤가 트여 있는 어린이용 풍차바지이
다.



풍차바지

길이 74cm
허리너비 68cm
소재 합성(면)

조끼허리와 바지가 붙어 있으며 뒤가
트여 있는 어린이용 풍차바지이다.



풍차바지(의류학과 소장품)

길이 52cm

허리너비 57cm

소재 인견(합성)

어깨끈만 부착된 어린이용 풍차바지
이다.



치마(의류학과 소장품)

길이 53cm

폭 52cm

소재 합성

조끼 허리가 붙어 있으며 앞트임의
여아 통치마이다.



치마(의류학과 소장품)

길이 68cm

폭 63cm

소재 인견(면)

조끼허리가 붙어있으며 앞트임의 여
아 통치마이다.



치마(의류학과 소장품)

길이 56cm

폭 62cm

소재 사(인견)

어깨에 끈을 부착하고 선단 장식이
되어 있는 여아 치마이다.



까치두루마기(의류학과 소장품)

길이 51.5cm
화장 37.5cm
뒷폭 53cm
소재 양단(노방)

길은 진분홍색, 소매·무·안섶은 색
동, 고름은 녹색으로 만든 어린이용
두루마기이다.



전복

길이 47cm

뒷폭 34cm

소재 문사

국화·쌍학문의 금박장식을 한 어린
이용 전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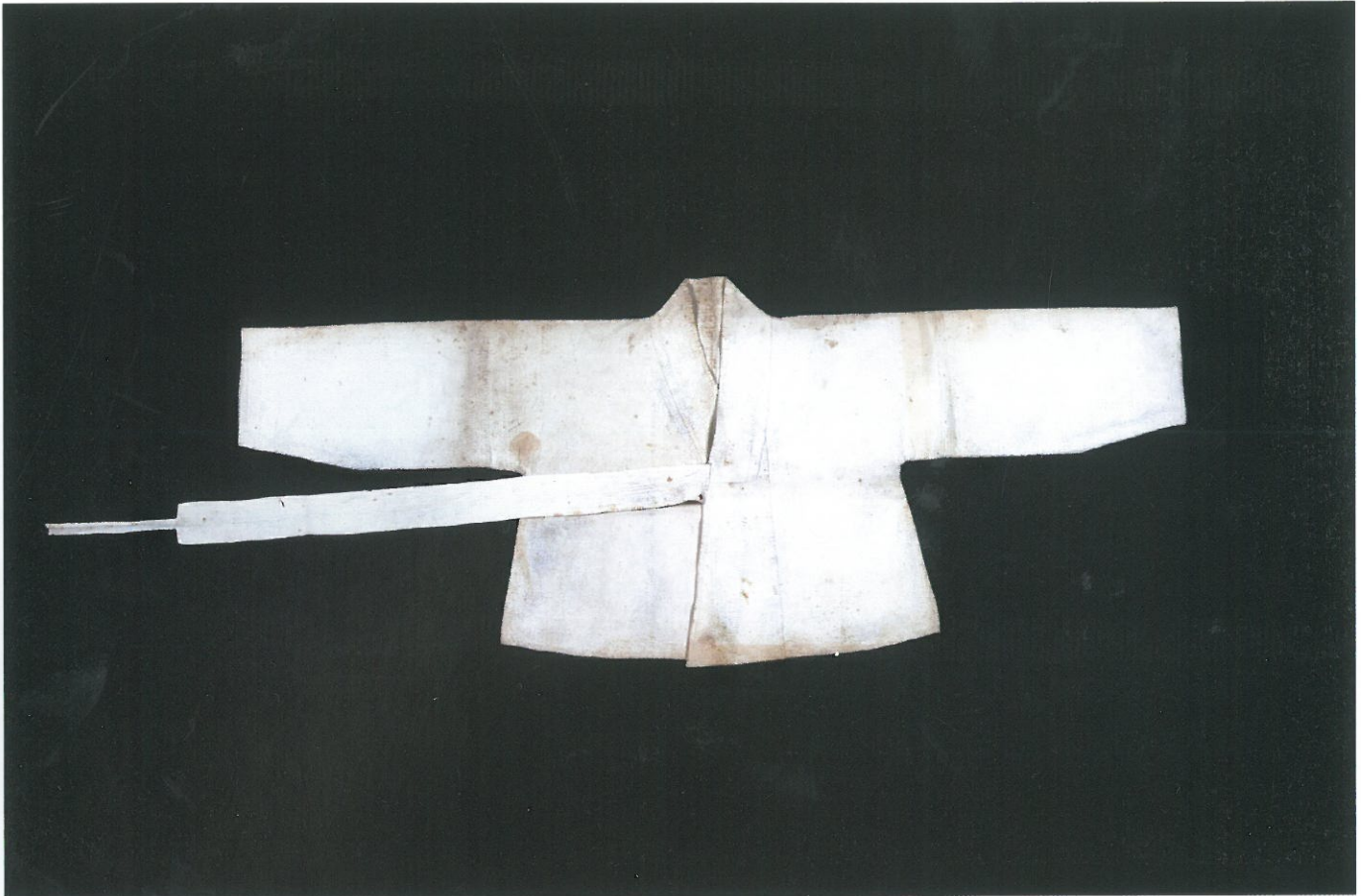


조끼

길이 30cm
뒷폭 32cm
소재 양단(노방)

국화 등의 은박장식이 있으며 목둘레 · 소매 · 선단 등 가장자리에서 0.3cm 떨어져서 상침장식을 한 어린이용 조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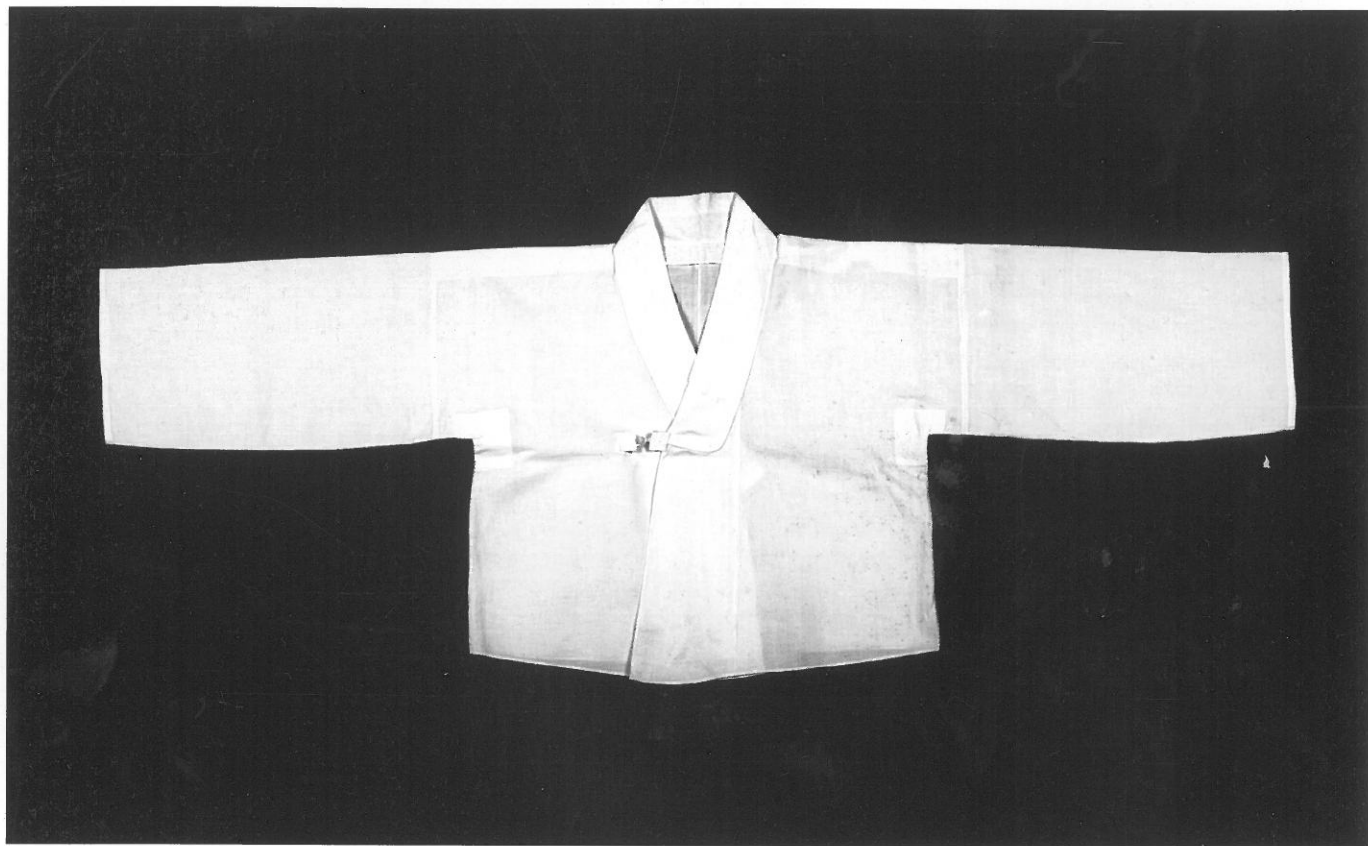
성인 남자 생활복



저고리

길이 58cm
화장 77cm
뒷폭 58cm
옆길이 28cm
소재 면(면)

고름은 1개로 되어 있고 끝에 얇은 끈이 달려 있으며 0.3cm 간격으로 누빈 솜 누비저고리이다.



적삼

길이 56cm
화장 76.5cm
뒷폭 58cm
옆길이 27.5cm
소재 옥양목

고름 없이 매듭단추로 여미고 겨드랑이와 어깨에 바대를 대었으며 재봉틀을 사용하여 깨끼바느질을 한 훌적삼이다.



적삼

길이 54cm
화장 74cm
뒷폭 56cm
옆길이 29cm
소재 삼베

손바느질로 반박음질을 하였고 겨드랑이와 어깨에 바대를 대고 단추로 여민 흘적삼이다. 주머니가 있으며 현대적인 디자인이다.



바지

길이 101cm
허리너비 95cm
소재 면

재봉틀을 사용하여 바느질한 홀으로
된 바지이다.



도포

길이 107cm
 화장 104cm
 뒷폭 58cm
 옆길이 70cm
 소재 면

조선시대 사대부의 대표적인 포이며 임진왜란 전에는 고관들의 신분을 상징하는 옷이었으나 임진왜란 이후 서민을 제외한 유생과 사대부도 착용할 수 있었다. 제주지역에서는 관·혼·상·제례 때 입혀져 왔다. 깃이 곧고 무가 달려 있으며 소매가 넓으며 뒷길에 별도의 뒷자락이 달려 있는 것이 특징이다.



두루마기

길이 107cm

화장 79cm

뒷폭 54cm

옆길이 80cm

소재 면(면)

재봉틀을 사용하여 바느질을 한 겹으로 된 두루마기이다.



두루마기

길이 12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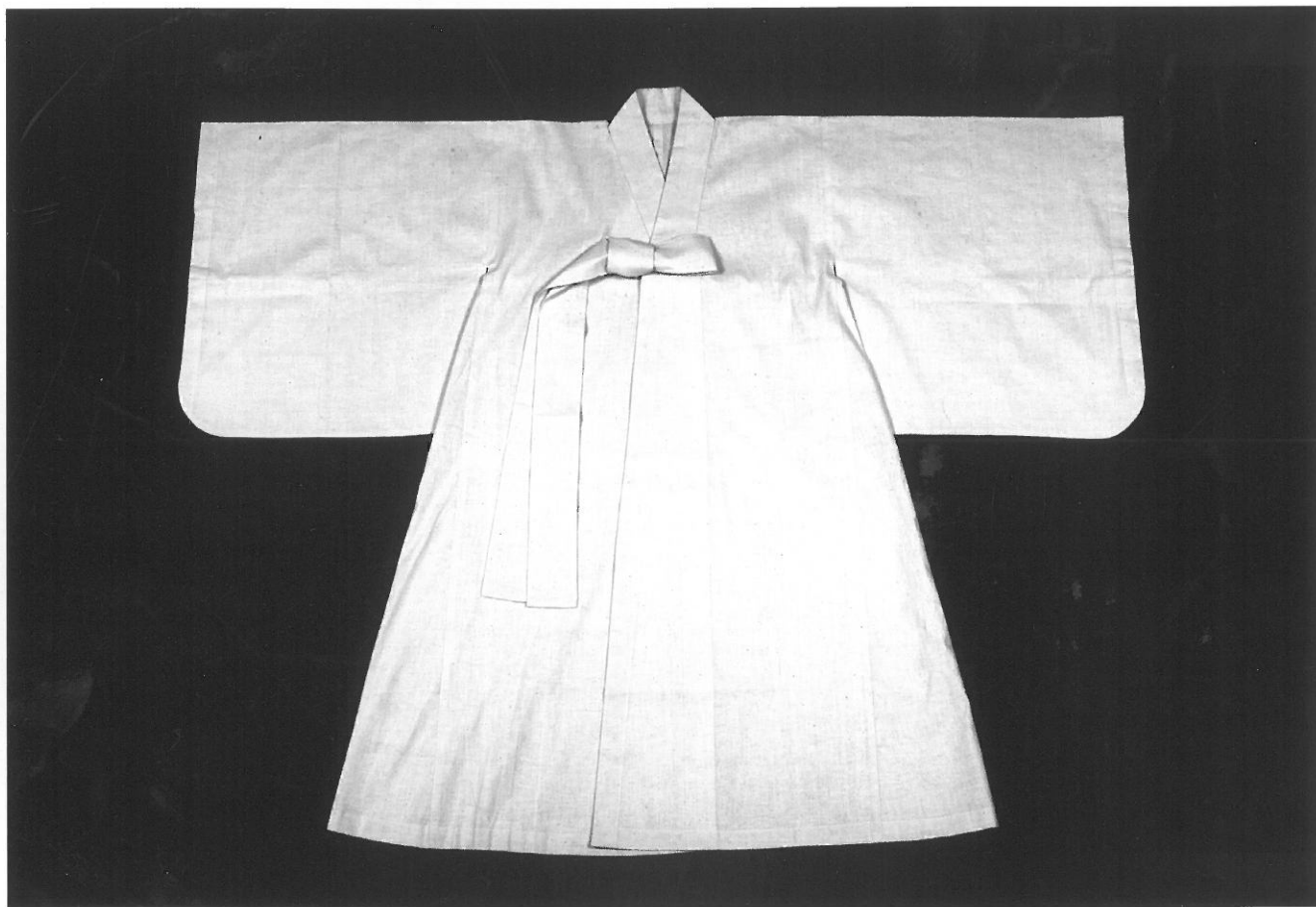
화장 76cm

뒷폭 27cm

옆길이 95cm

소재 명주(면)

거드랑이 밑에 주머니 트임이 있으며
손바느질한 솜두루마기이다.



도포

길이 113cm
 화장 27cm
 뒷폭 56cm
 옆길이 88cm
 소재 광목

조선시대 사대부의 대표적인 포이며 임진왜란 전에는 고관들의 신분을 상징하는 옷이었으나 임진왜란 이후 서민을 제외한 유생과 사대부도 착용할 수 있었다. 제주지역에서는 관·훈·상·제례에 입었다. 깃이 곧고 무가 달려 있으며 소매가 넓으며 뒷길에 별도의 뒷자락이 달려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갈적삼

길이 51.5cm

화장 67cm

뒷폭 50cm

옆길이 26cm

소재 면

매듭단추로 여미고 어깨와 겨드랑이에 바대를 대었으며 손바느질한 흘갈적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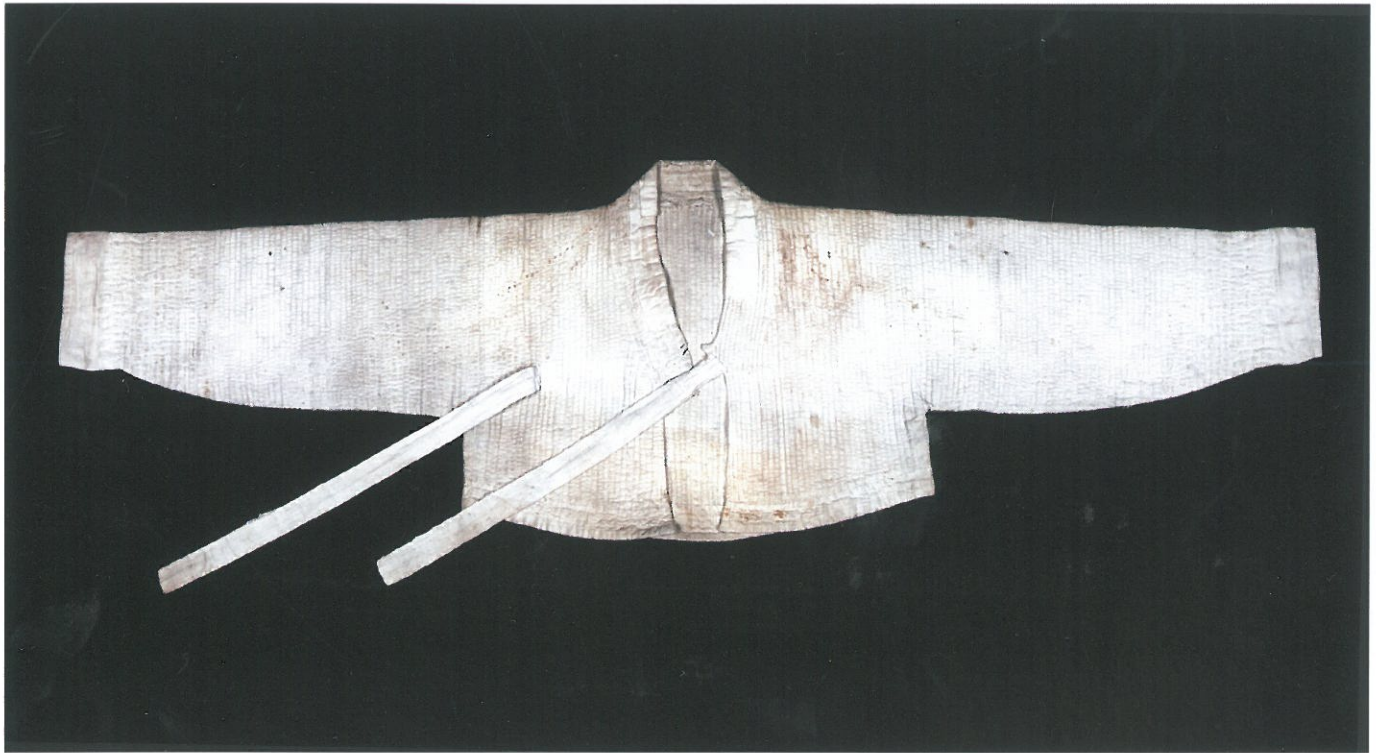


갈적삼 및 갈중이

길이 84cm
허리너비 90cm
소재 면

재봉틀을 사용해 바느질하고 홀으로
된 남자사폭바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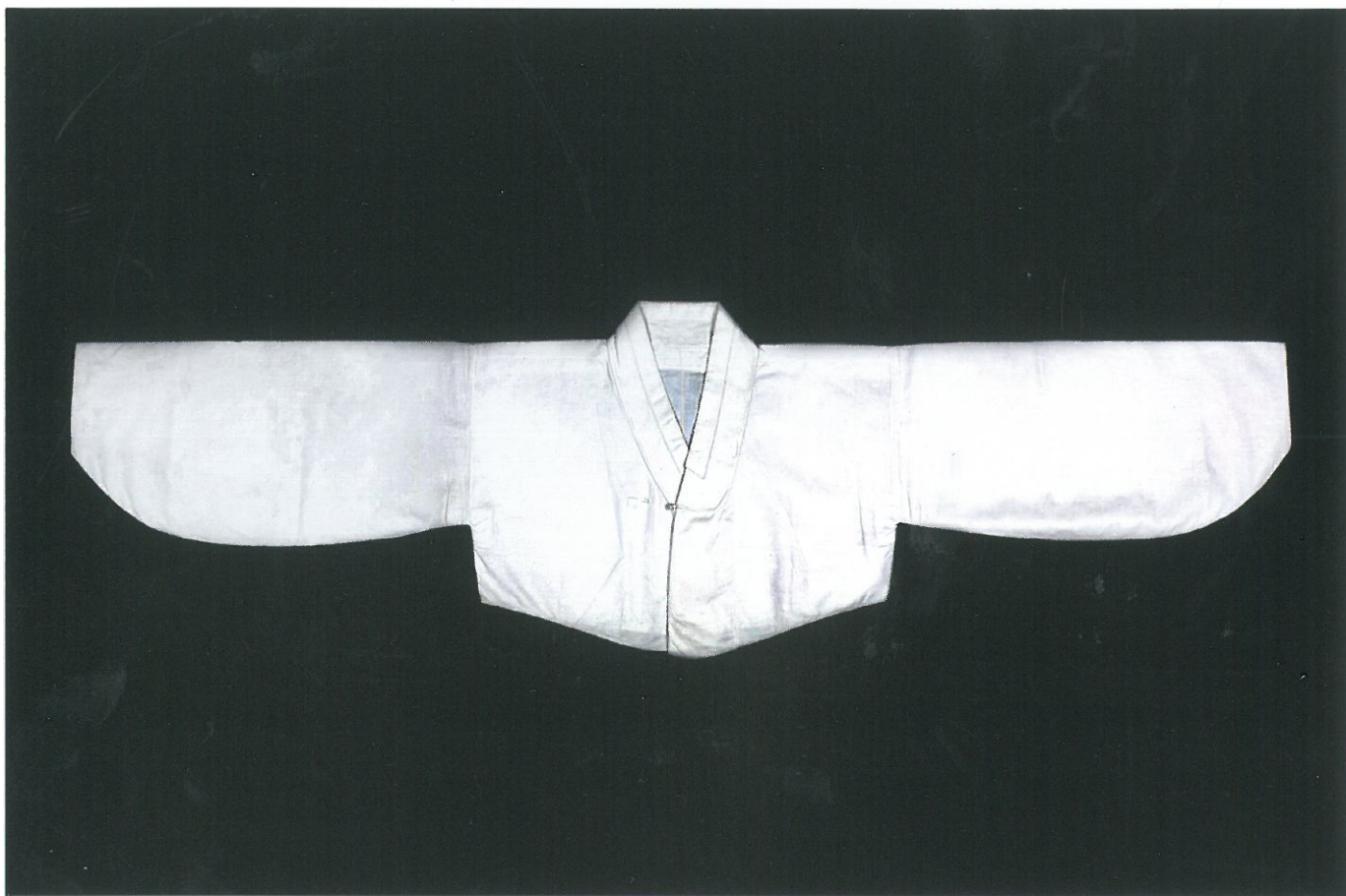
성인 여자 생활복



저고리

길이 41cm
화장 74cm
뒷폭 54cm
옆길이 10cm
소재 면(면)

0.6cm 간격으로 손으로 누비고 안감
선탄을 따로 재단을 하였고 당코깃으
로 된 솜 누비저고리이다.



저고리

길이 33.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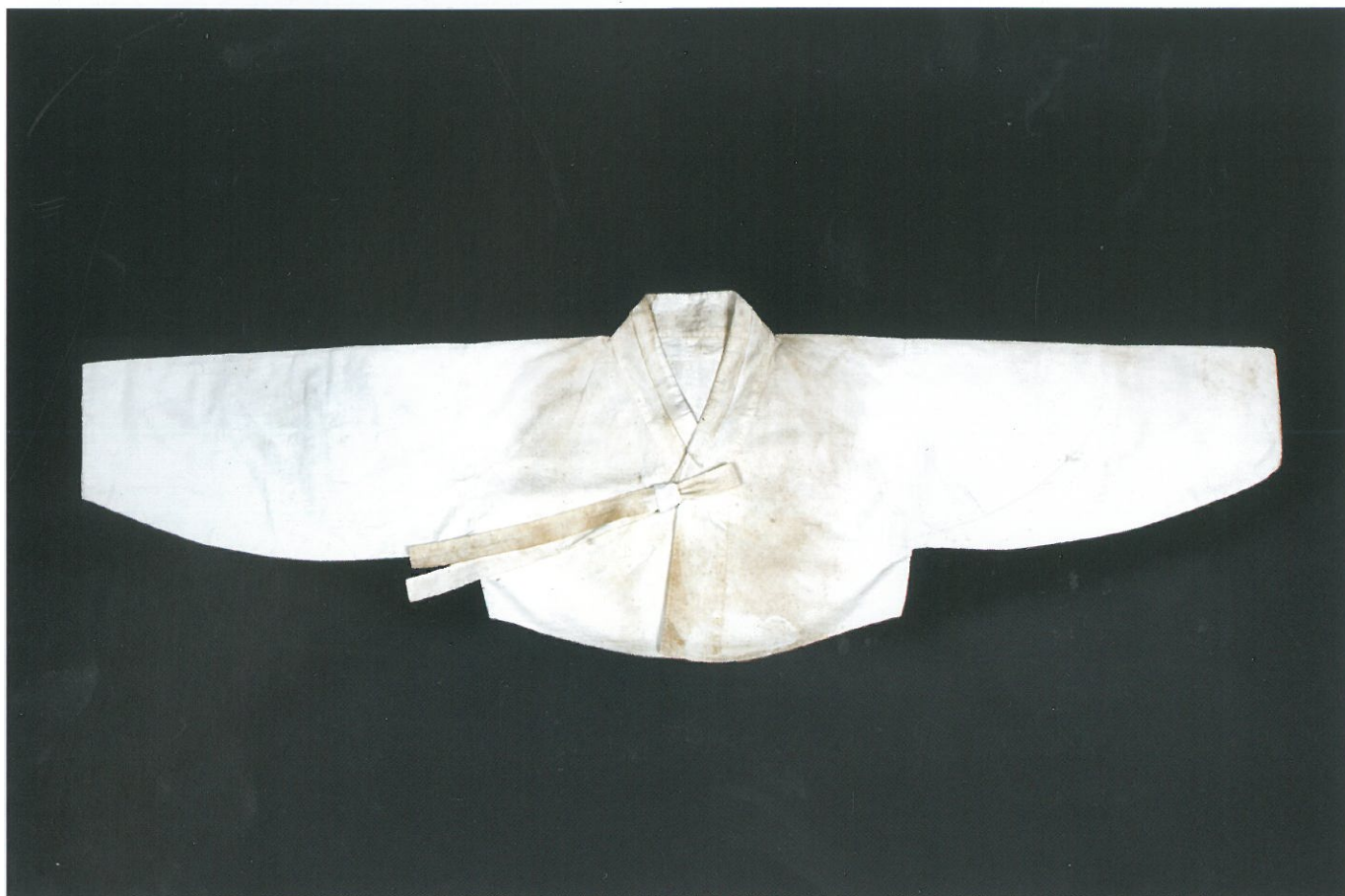
화장 66cm

뒷폭 45cm

옆길이 8.5cm

소재 면

어깨부분과 겨드랑이 부분에 바대를
댄 여자 홀저고리이다. 속고름이 있
으며 매듭단추로 여미게 되어 있고
재봉틀로 바느질하였다.



저고리

길이 35.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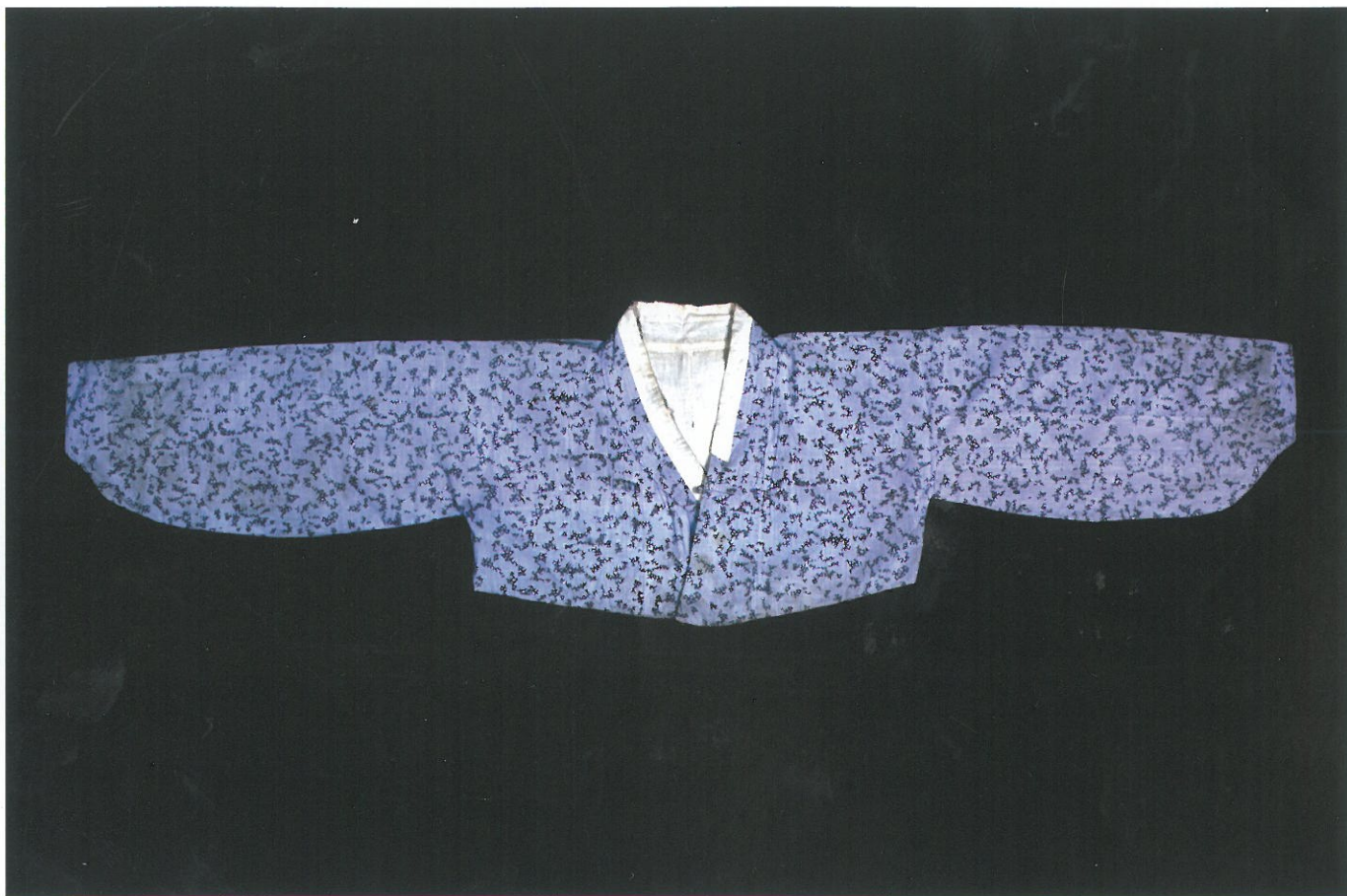
화장 67cm

뒷폭 50cm

옆길이 7.5cm

소재 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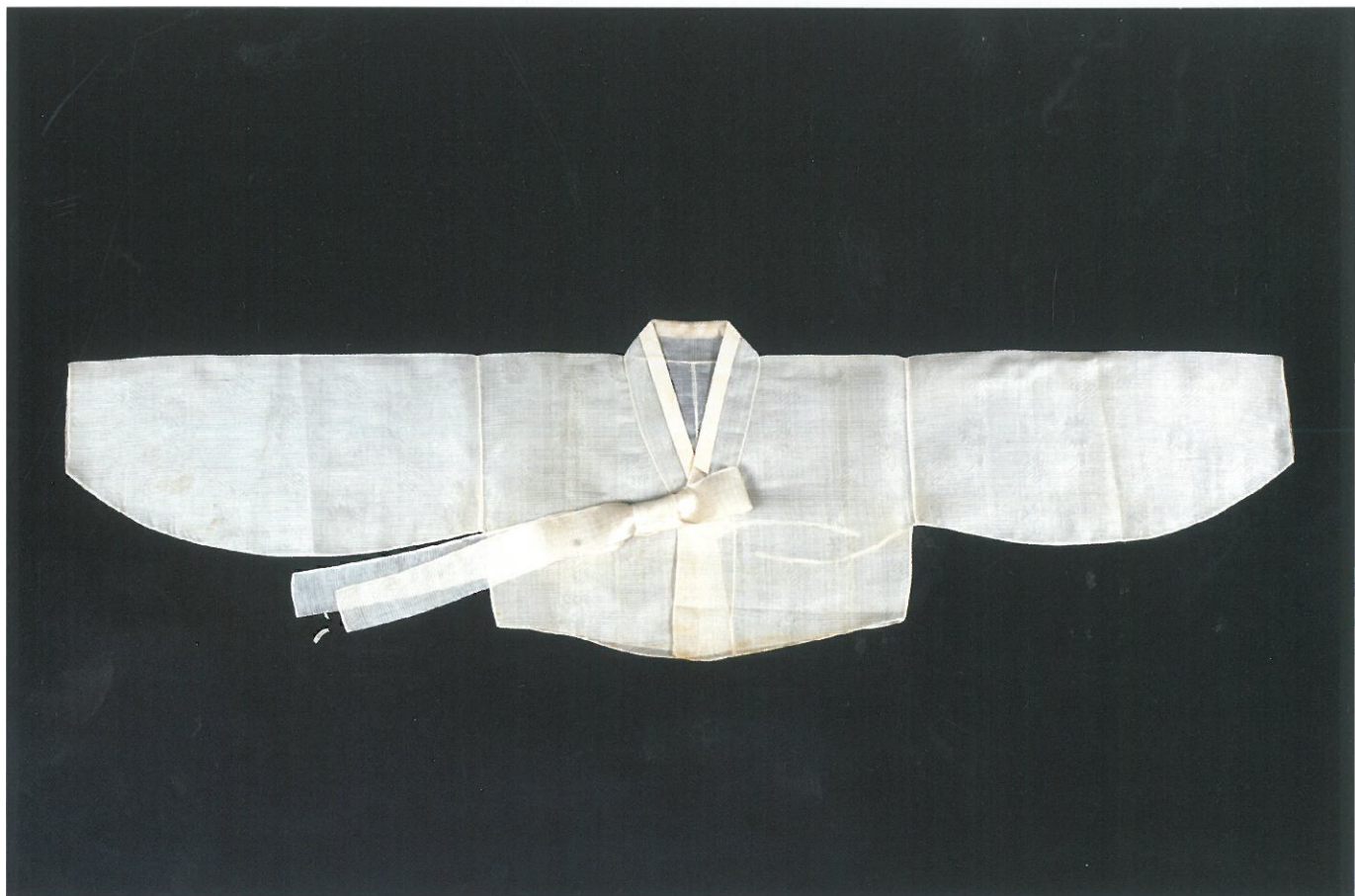
재봉틀바느질과 손바느질을 함께 한 여자 겹저고리이다. 도련과 셔에는 세땀상침이 되어 있으며 당코깃으로 멋을 부렸으며 고름이 달려 있다.



저고리

길이 30cm
화장 68cm
뒷폭 48cm
옆길이 9.5cm
소재 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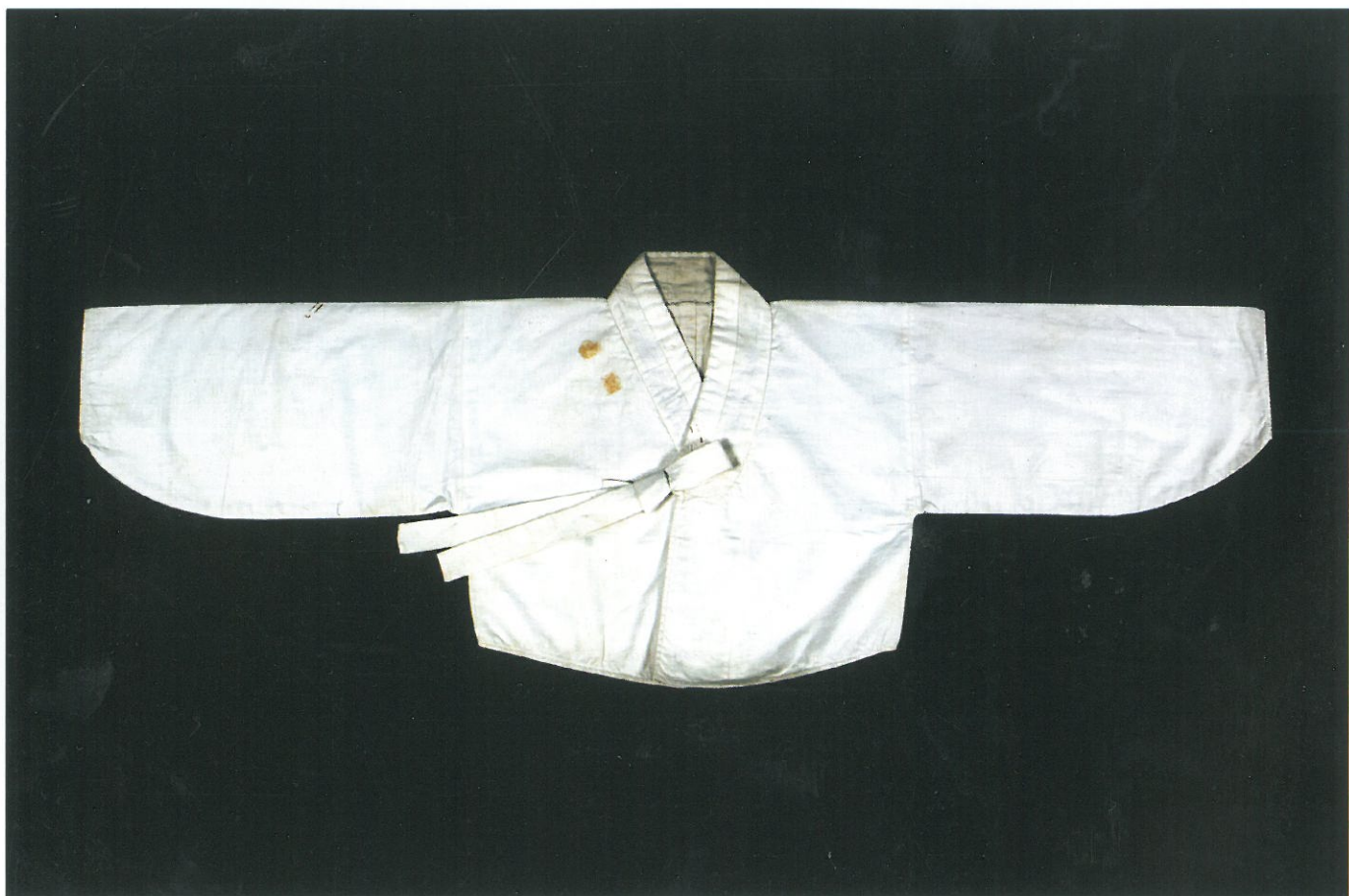
속고름이 있으며 매듭단추로 여미게
되어 있고 재봉틀로 바느질한 여자
겹저고리이다.



저고리

길이 33cm
화장 69cm
뒷폭 49cm
옆길이 10cm
소재 본견항라(노방)

속고름이 달려 있으며 동정은 종이 위에 항라를 씌워서 사용하였으며 재봉틀 깨끼바느질을 한 여자 겹저고리이다.



저고리

길이 43.5cm
화장 65cm
뒷폭 50cm
옆길이 15cm
소재 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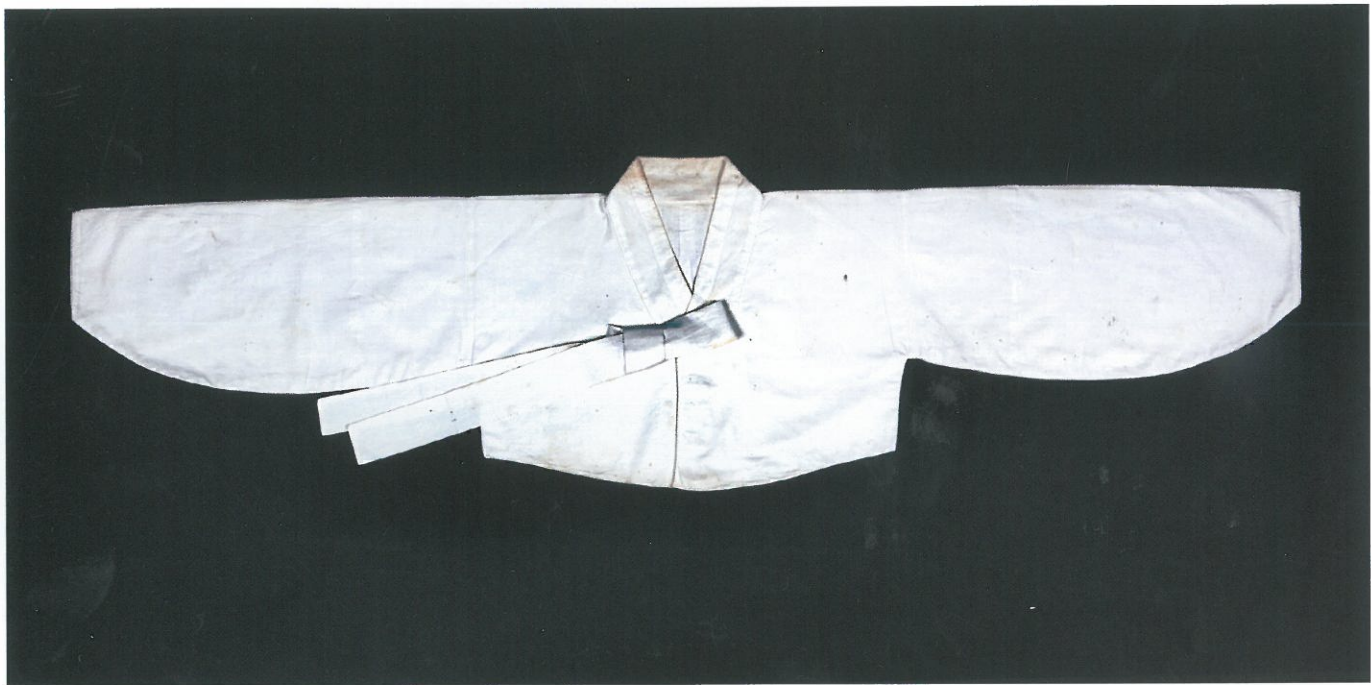
당코깃으로 멧을 부렸고 겨드랑이와 어깨에는 바대가 없다. 손바느질과 재봉틀을 함께 사용하여 만든 여자 겹저고리이다.



저고리

길이 40cm
화장 70.5cm
뒷폭 50cm
옆길이 11.5cm
소재 세모시(고운면)

당코깃이며 재봉틀로 바느질한 여자
겹저고리이다.



저고리

길이 3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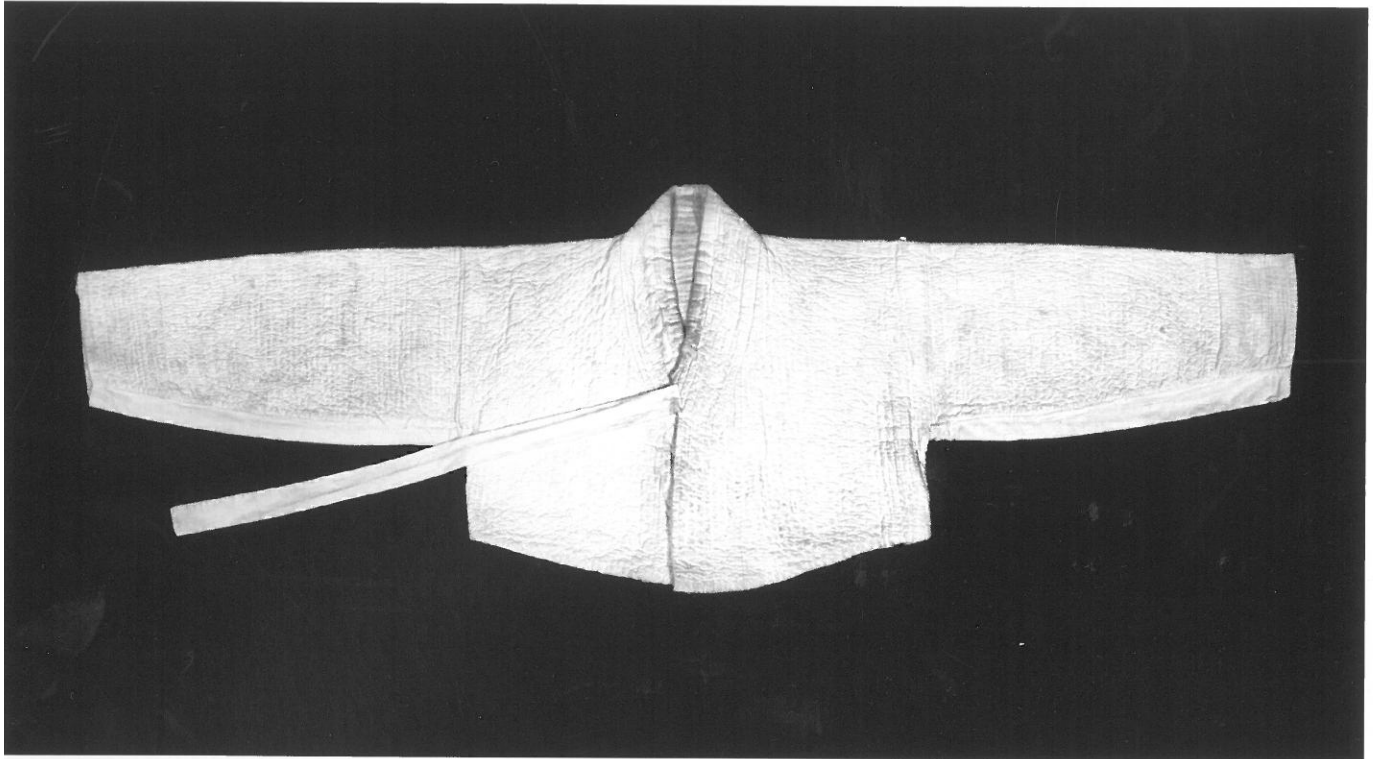
화장 71cm

뒷폭 50cm

옆길이 10.5cm

소재 면(면)

속고름이 있고 재봉틀로 바느질한 여자 겹저고리이다.



저고리

길이 38.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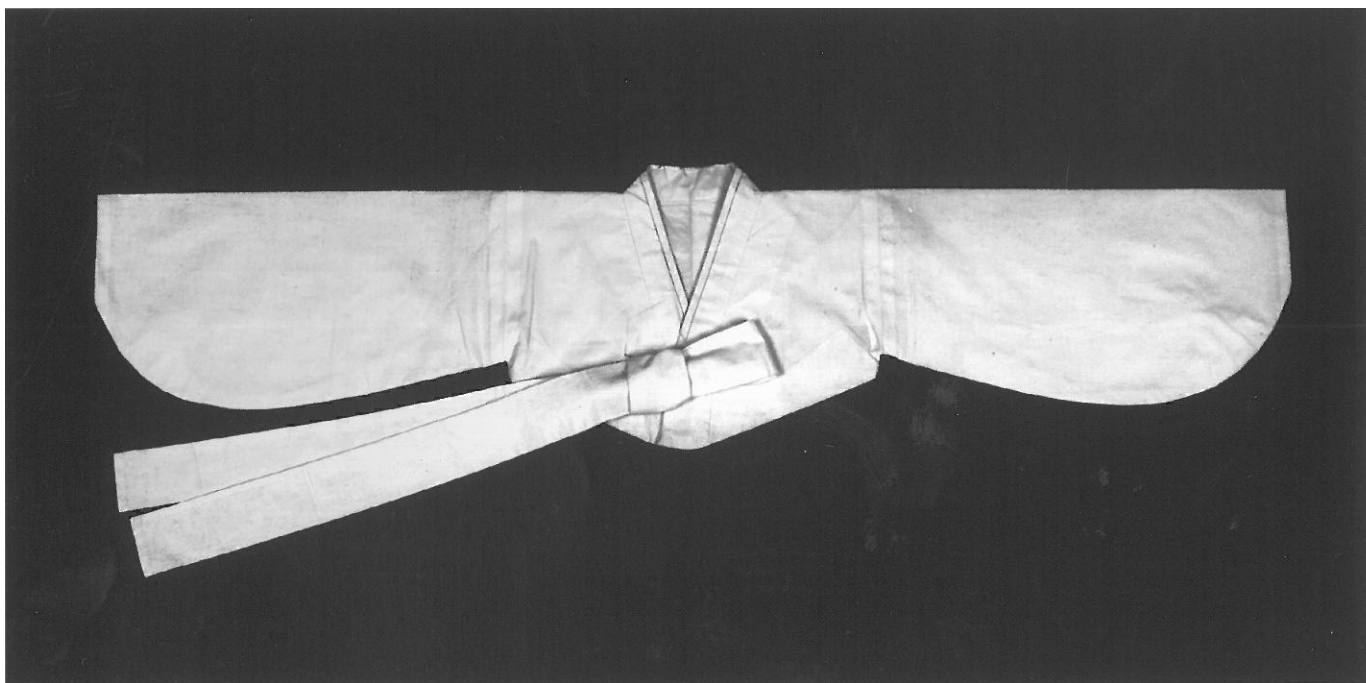
화장 66cm

뒷폭 49cm

옆길이 10.5cm

소재 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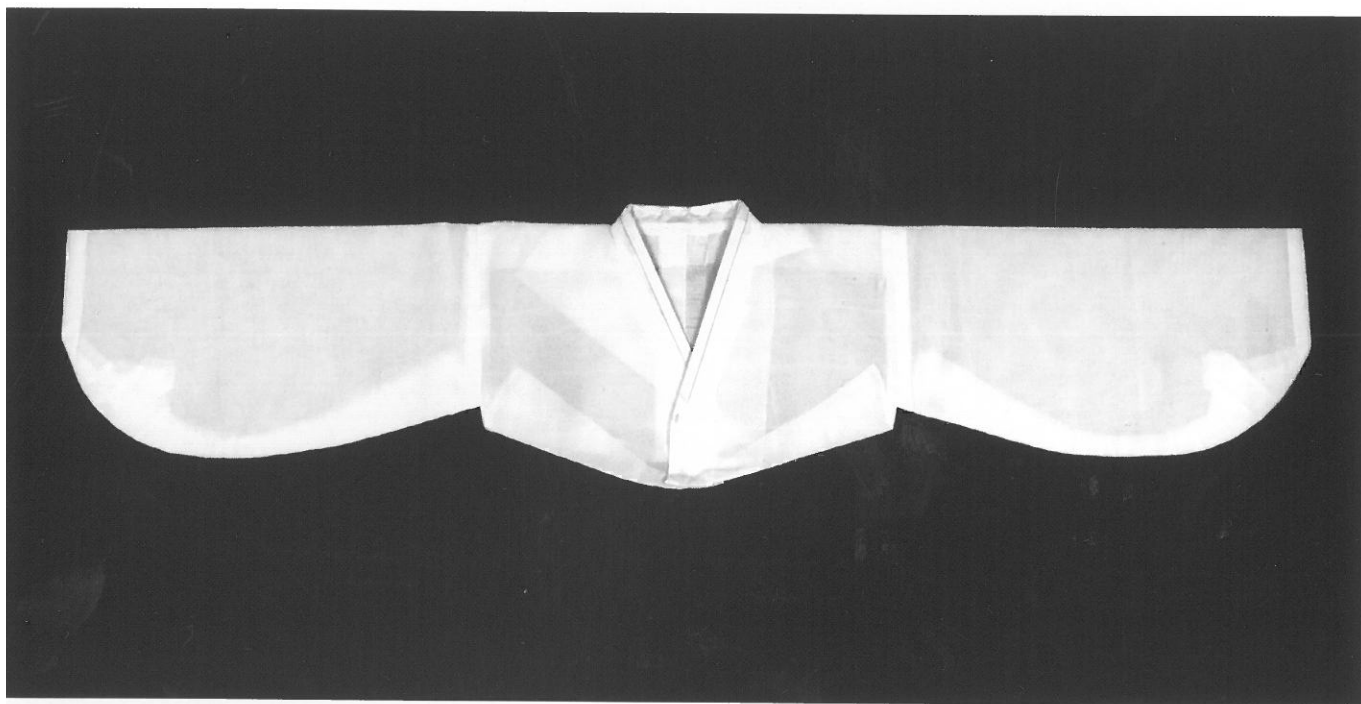
당코깃이며 0.7cm 간격으로 누비를
한 여자 겹 솜 누비저고리이다.



저고리

길이 28cm
화장 66.5cm
뒷폭 41cm
옆길이 3cm
소재 면(노방)

뚝딱이와 고름으로 여민 여자 겹저고리이다.



저고리

길이 28cm

화장 67.5cm

뒷폭 46cm

옆길이 2.5cm

소재 합성(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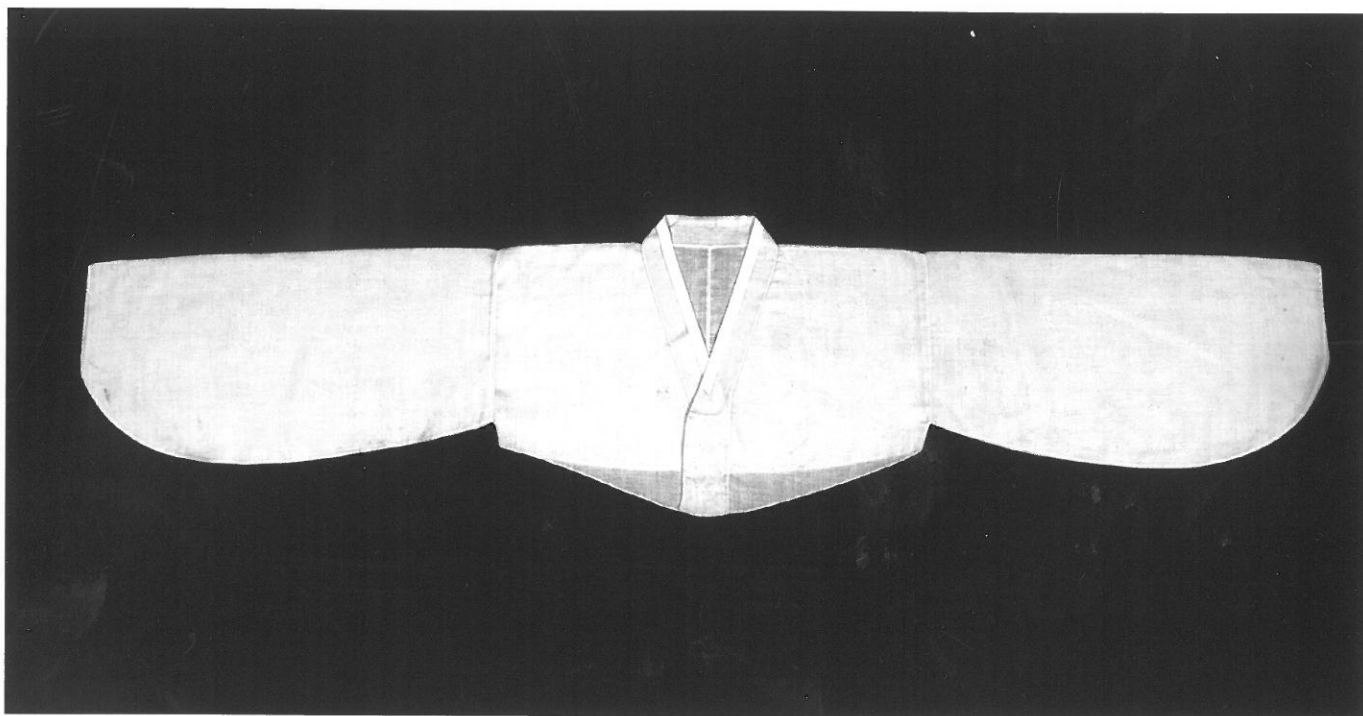
고름없이 양쪽에 실고리를 달아놓은 것으로 보아 브로치 등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여자 겹저고리이다.



저고리

길이 27cm
화장 71cm
뒷폭 51cm
옆길이 2.5cm
소재 모본단(명주)

동정은 없고 뜯겨진 자국만 남아 있으며 속고름이 있는 반회장 겹저고리이다.



저고리

길이 32.5cm

화장 74cm

뒷폭 25.5cm

옆길이 3cm

소재 아사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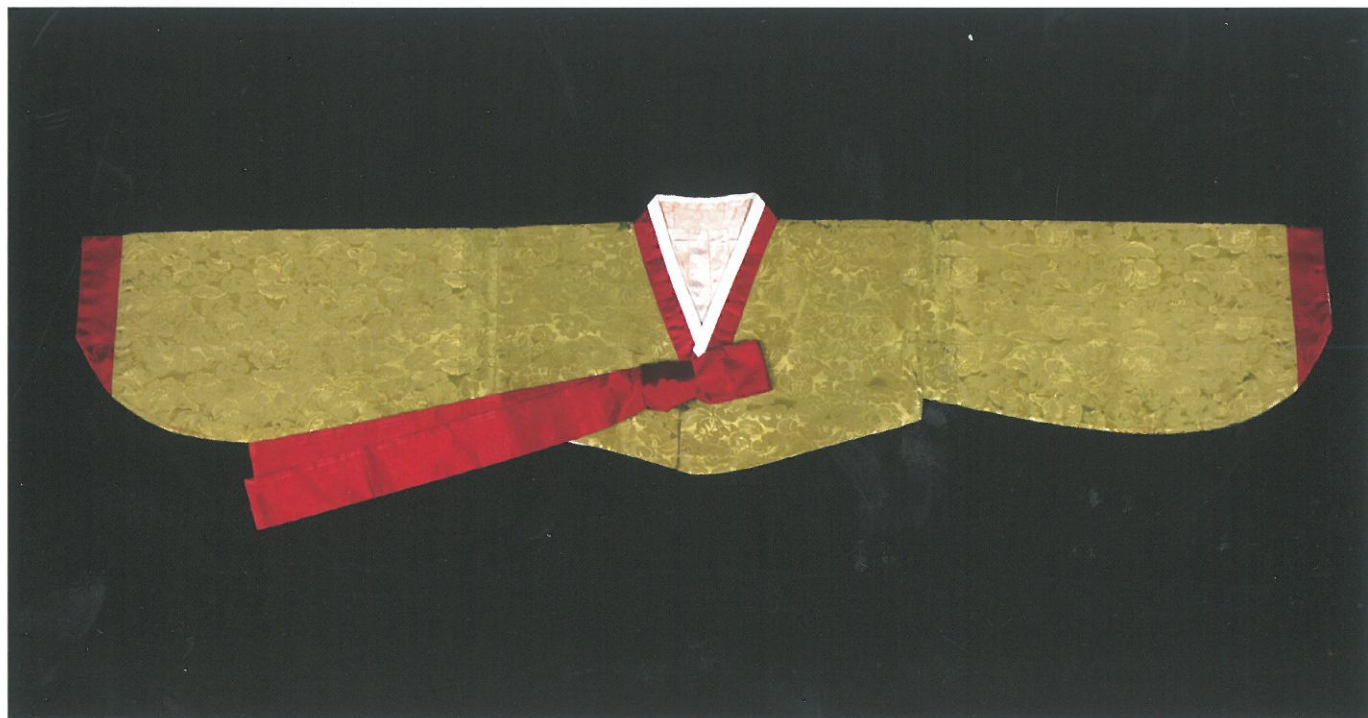
고름없이 양쪽에 실고리를 달아놓은 것으로 보아 브로치 등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여자 겹저고리이다.



저고리

길이 30cm
화장 75.5cm
뒷폭 29cm
옆길이 3.5cm
소재 인견(인견)

동정은 없고 뜯겨진 자국만 남아 있으며 속고름이 있는 삼회장 색동 겹저고리이다.



저고리

길이 30cm
화장 76cm
뒷폭 41cm
옆길이 2.5cm
소재 인견(인견)

똑딱이 단추와 고름으로 여민 반회장
겹저고리이다.



치마

길이 95cm
폭 240cm(5폭)
주름 1~1.5cm(왼쪽 방향)
소재 향라

일자허리말기 형태의 흘치마이며 말
기에는 고운 면을 사용했다.



치마

길이 102cm
폭 214cm(2폭)
주름 1cm(왼쪽 방향)
소재 아사면, 표면에 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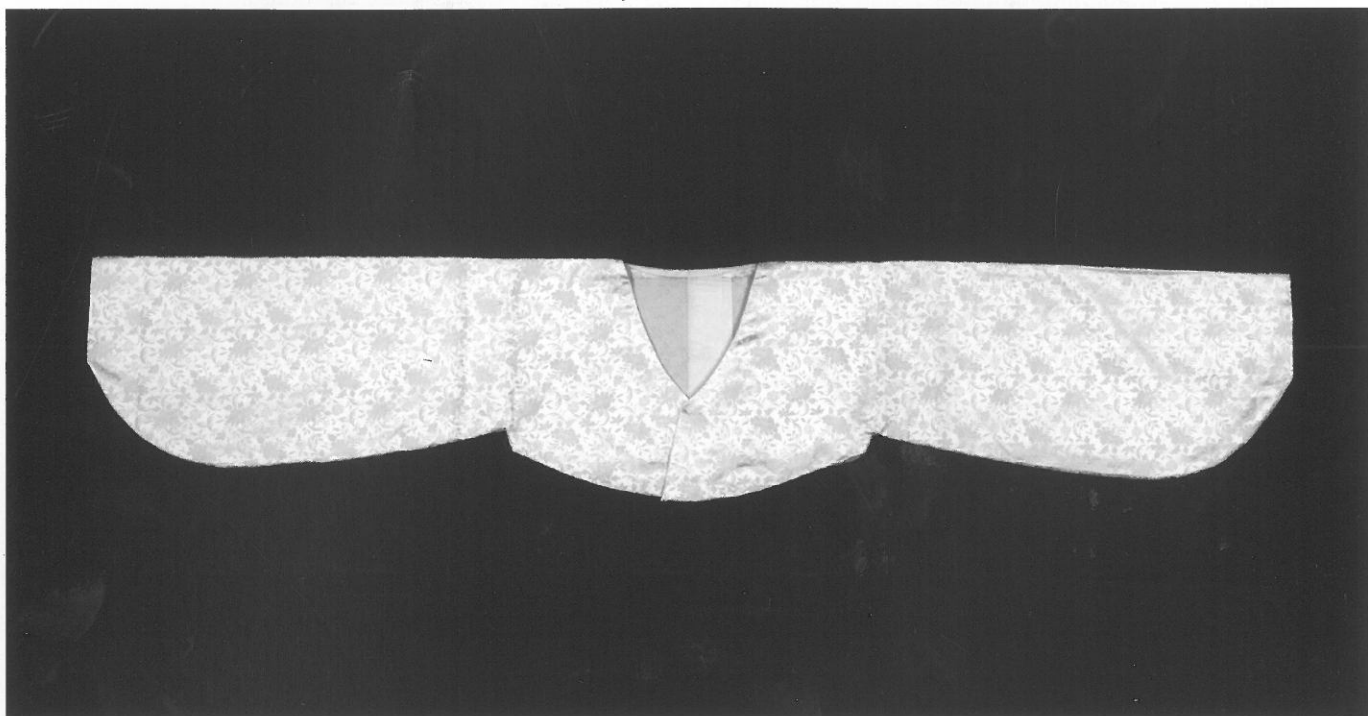
일자허리말기 형태의 훌치마이며 재
봉틀로 바느질하였다.



치마

길이 101cm
폭 224cm(2.5폭)
주름 2cm(왼쪽 방향)
소재 아사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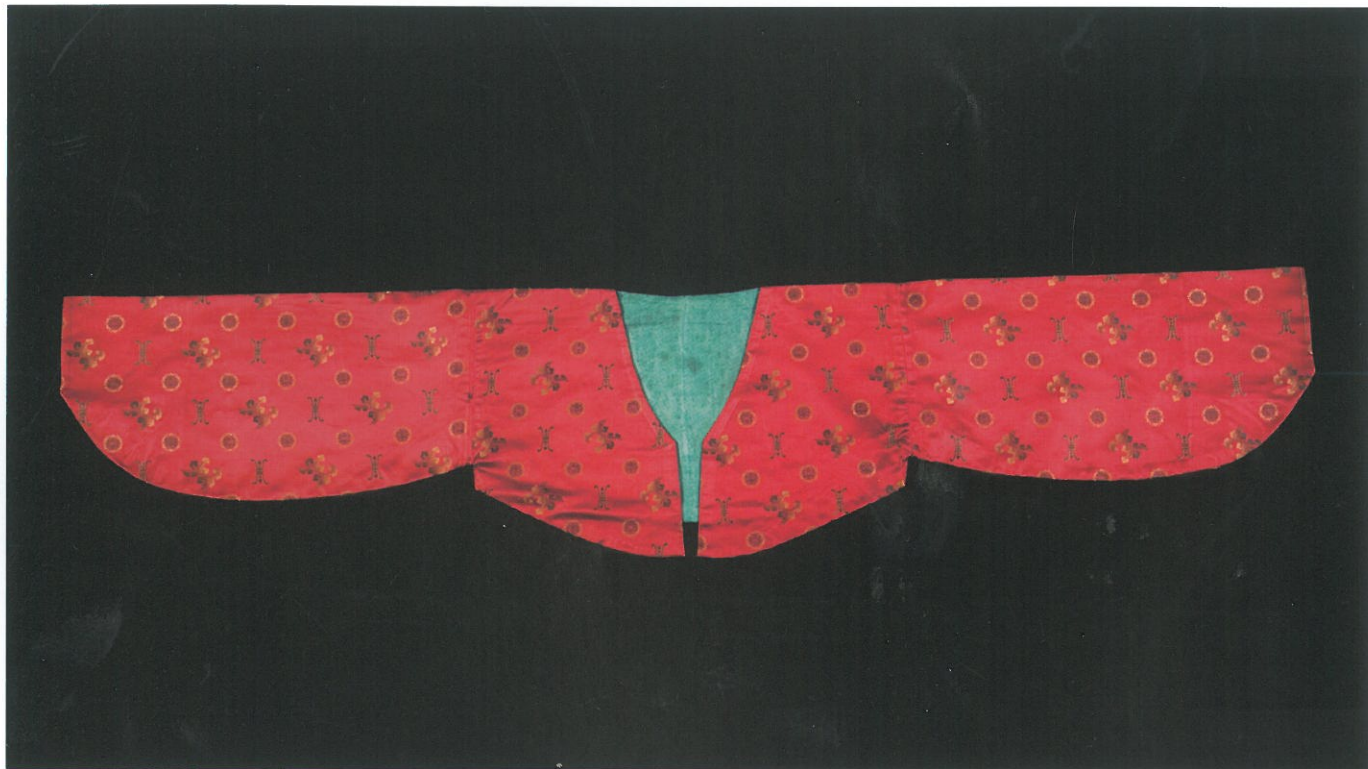
재봉틀로 바느질한 통치마이다.



마고자

길이 28.5cm
화장 72.5cm
뒷폭 44cm
옆길이 2.5cm
소재 단(사)

여자 겹 마고자이다.



마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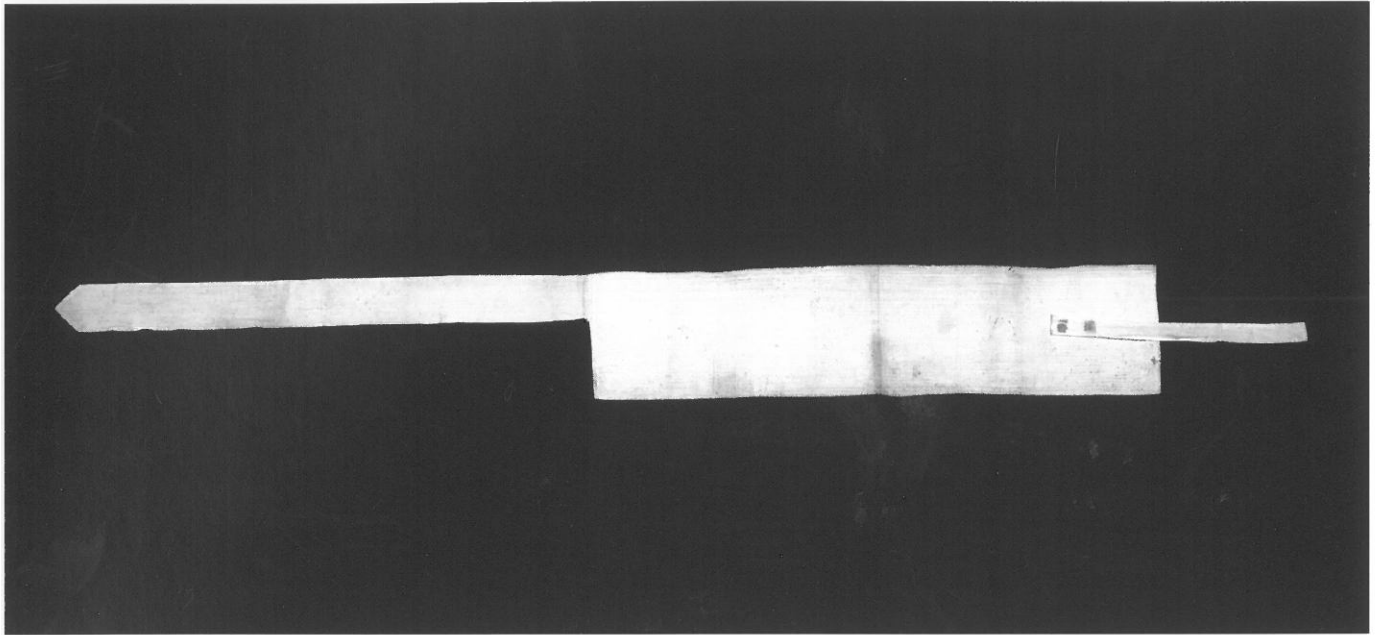
길이 32.5cm

화장 76.5cm

옆길이 3.5cm

소재 홍콩양단(명주)

여자 겹 마고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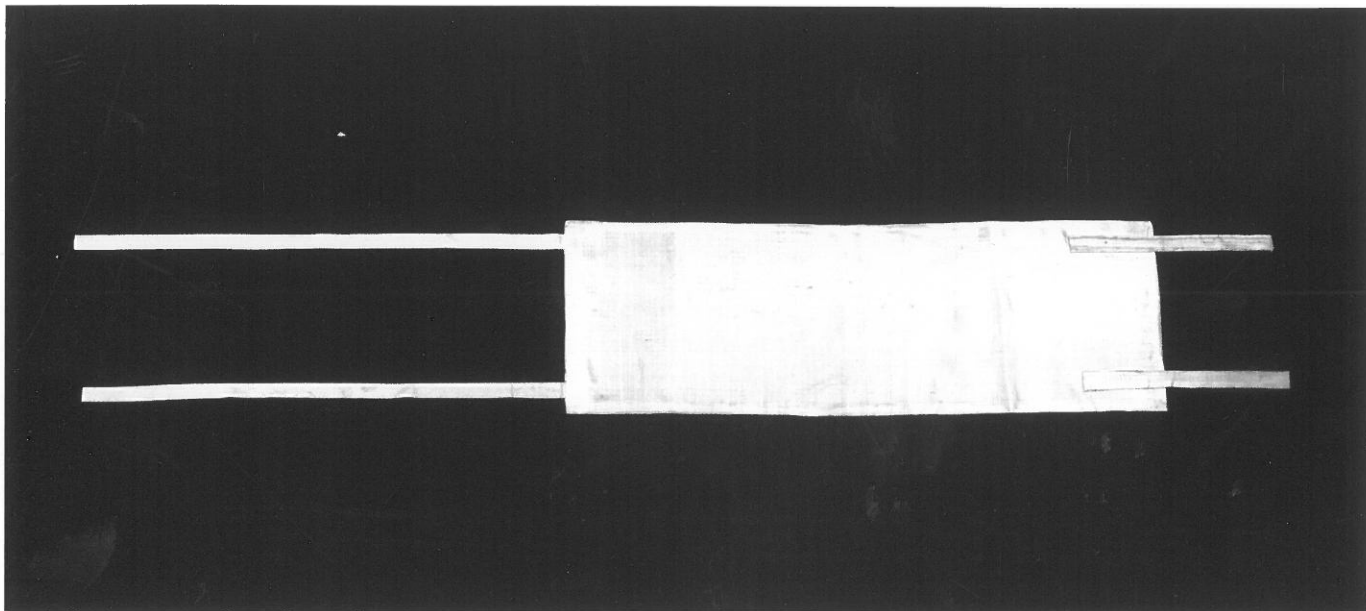
가슴싸개

길이 88cm

너비 20cm

소재 면

여자의 저고리가 짧아지면서 가슴을 가리기 위한 누비가슴싸개이며 양쪽에 끈이 달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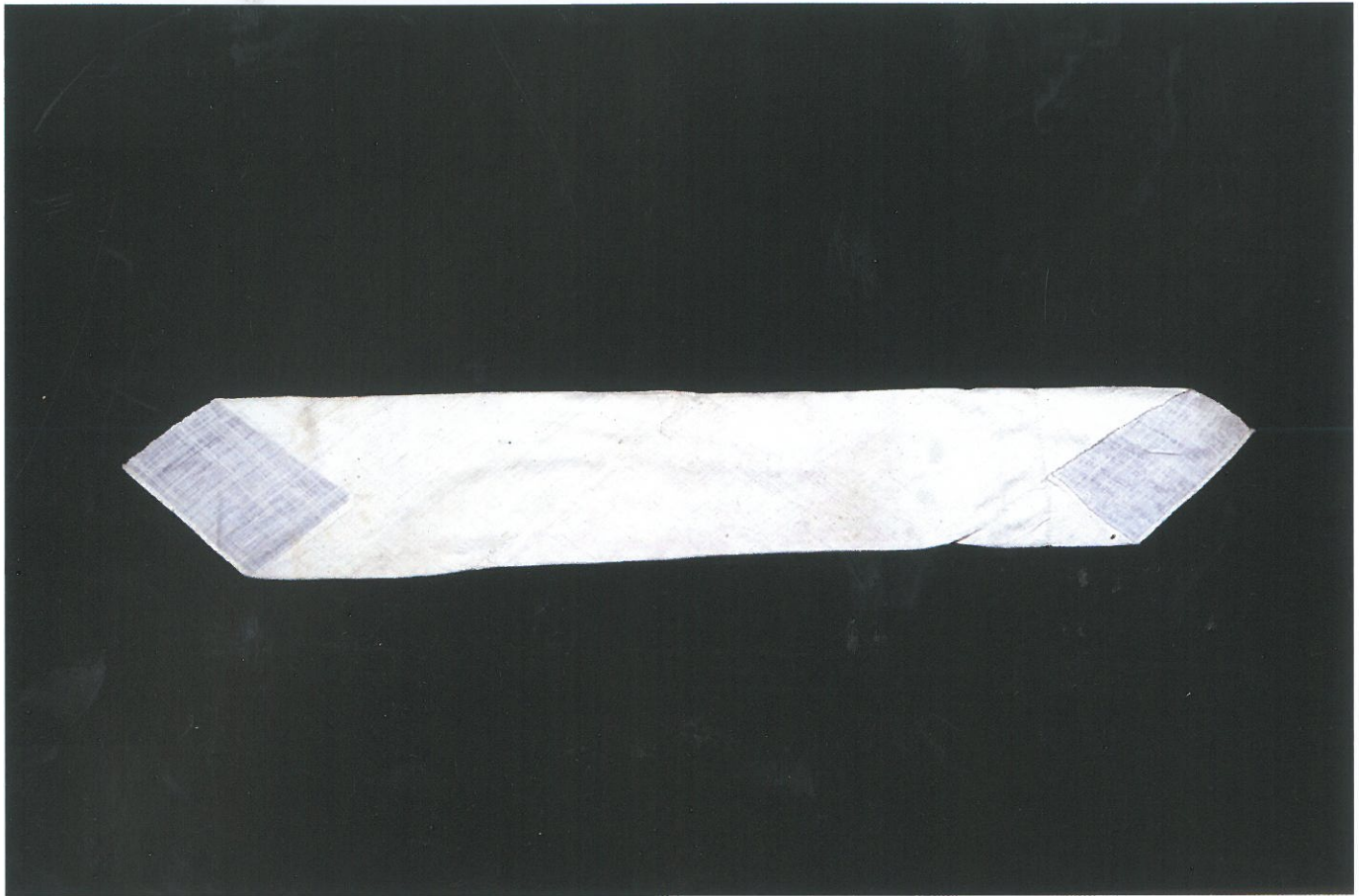
가슴싸개

길이 101cm

너비 33cm

소재 명주

겹으로 되어 있고 양쪽 아래 위에 두
개씩 끈이 달려 있는 가슴싸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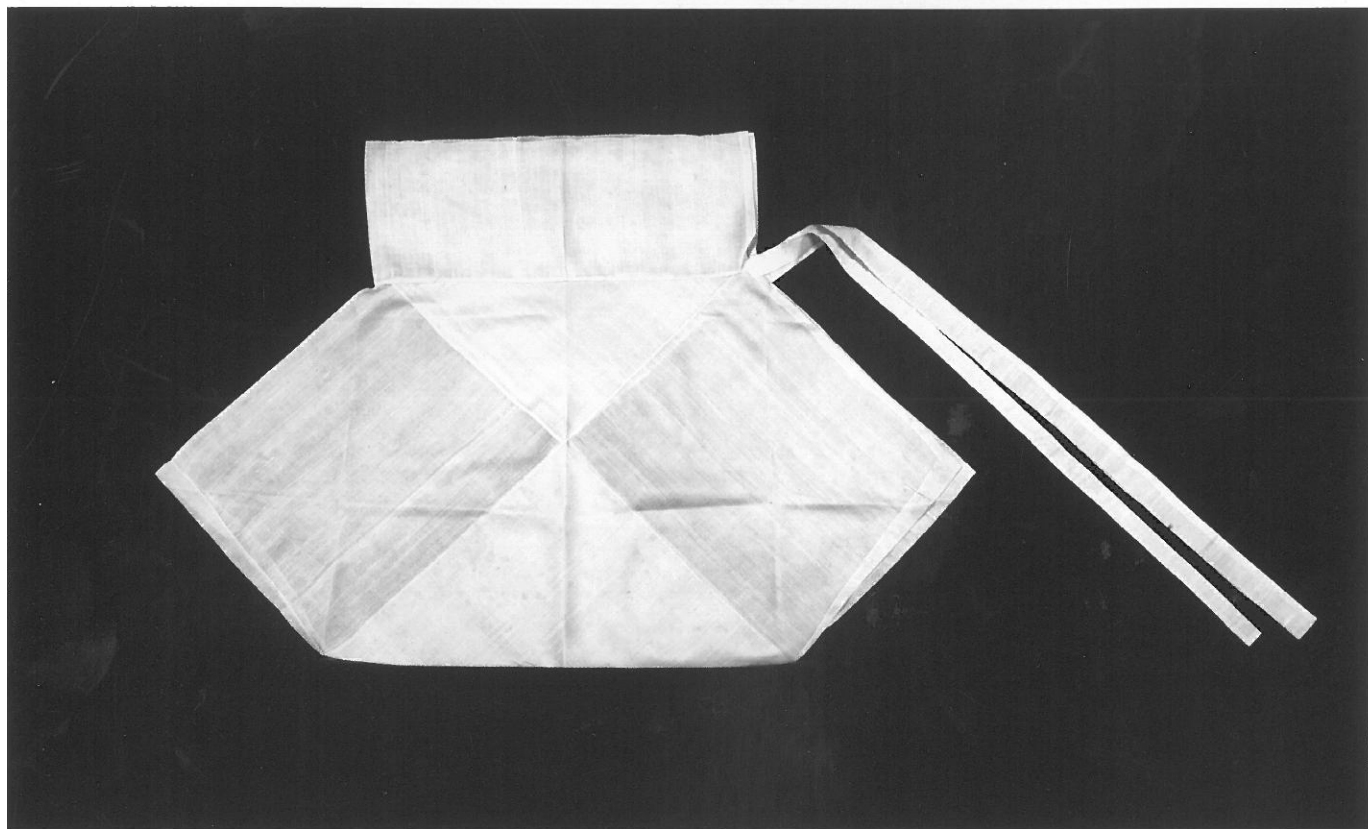
서답

길이 128cm

너비 20cm

소재 면

가장자리는 재봉틀, 솔기는 손감침질
로 처리된 소재의 면이다.



소중이

길이 60cm
허리너비 87cm
소재 명주

속옷의 일종으로 왼쪽 옆이 모두 트여 있다.



속바지

길이 88cm
허리너비 80cm
소재 면

사다리꼴 형태의 무가 달리고 밑이 트여 있으며 1cm 간격의 손누비 속바지이다.



속바지

길이 89cm
허리너비 82cm
소재 면

사다리꼴 형태의 무가 달리고 밑이
트여 있는 속바지이다.



속바지

길이 91cm

허리너비 82cm

소재 면

사다리꼴 형태의 무가 달리고 밑이
트여 있는 속바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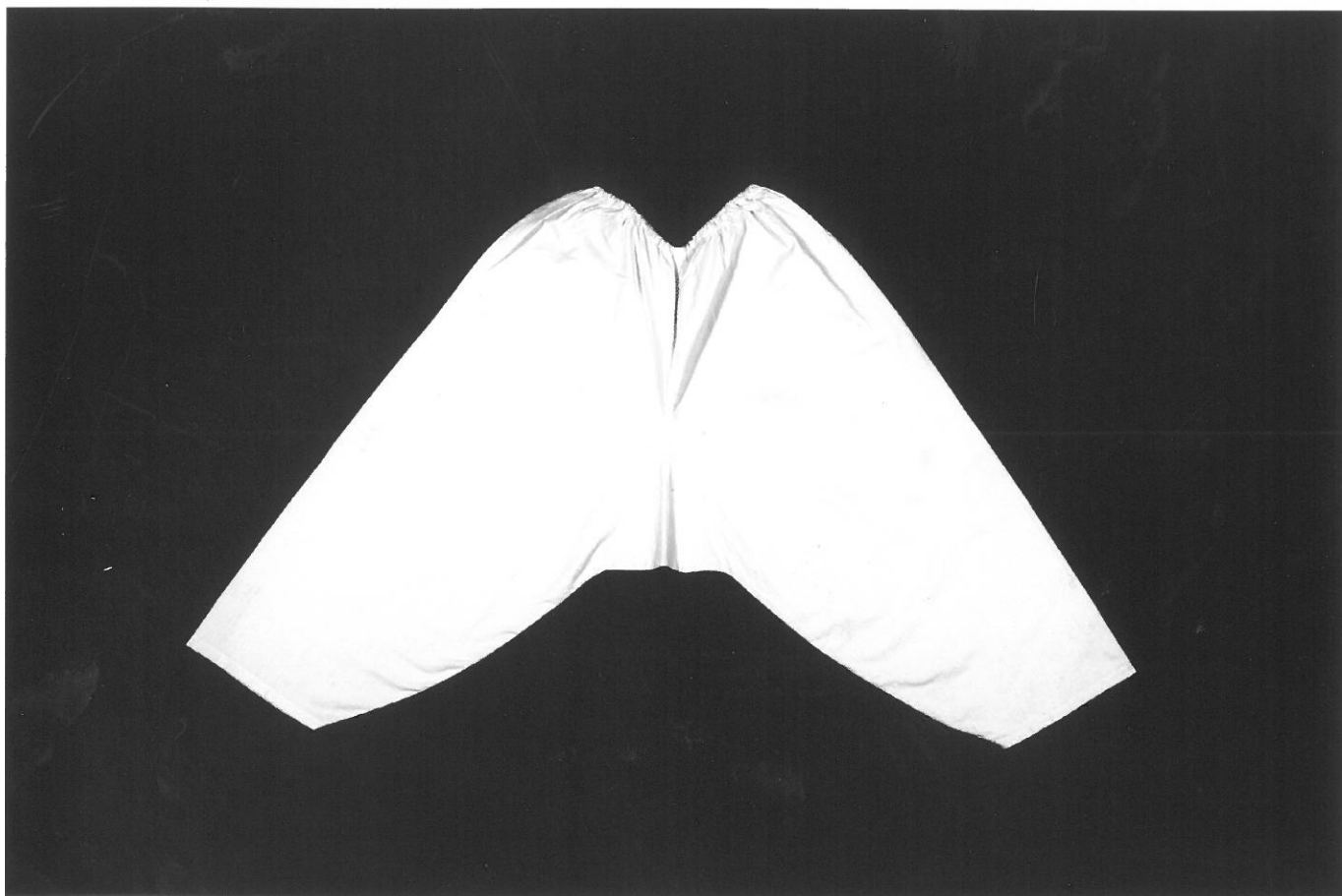
고쟁이

길이 79cm

허리너비 148cm

소재 면

헤어져 보수한 자국이 많고 0.5cm
간격으로 손으로 누빈 고쟁이이며 따
로 무를 달지 않았다.



고쟁이

길이 84cm

허리너비 148cm

소재 면

삼각형의 무가 달리고 허리에 고무줄을 넣은 홀고쟁이이다.



고쟁이

길이 91cm
허리너비 96cm
소재 삼베

허리에 고무줄을 넣은 홀고쟁이이다.



너른바지

길이 89cm

허리너비 102cm

소재 광목

사다리꼴 형태의 무가 달리고 밑이 트여 있는 여자의 너른바지이며 허리에 끈이 달려 있다.



처녀속곳

저고리길이 37cm

화장 58cm

바지길이 79cm

허리너비 80cm

소재 면

상의(적삼형)와 하의(단속곳)가 연결되어 있으며 적삼은 앞트임, 단속곳은 옆트임이며 밑에 삼각형의 무가 달려 있는 처녀속곳이다.



물맞이옷

조끼허리길이 34,5cm

바지길이 60cm

허리너비 112cm

소재 면 · 광목

상의(조끼형)와 하의(바지형)가 연결되어 있으며 어깨에 단추가 달려 있고 가슴에는 끈으로 여미게 되어 있으며 무가 없는 형태의 물맞이옷이다. 단옷날 폭포에서 물을 맞으면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는 믿음이 있어 이 옷을 입고 폭포물을 맞았다고 한다.



물맞이옷

조끼허리길이 34cm

바지길이 65.5cm

허리너비 106cm

소재 면

상의(조끼형)와 하의(바지형)가 연결되어 있으며 어깨에 단추가 달려 있고 끈으로 여미게 되어 있으며 밑에 무가 없는 형태의 물맞이옷이다. 단 옷날 폭포에서 물을 맞으면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는 믿음이 있어 이 옷을 입고 폭포물을 맞았다고 한다.

혼례복



단령

길이 109cm
 화장 76cm
 뒷폭 62.5(125)cm
 옆길이 78cm
 소재 인견(인견)

쌍학 흥배가 가슴과 등에 달려 있는 뒤젓힘형 단령으로 재봉틀을 사용하여 바느질하고 겉과 안을 따로 재봉한 겹단령이다.



단령

길이 147.5cm
 화장 74.5cm
 뒷폭 64cm
 옆길이 93.5cm
 소재 용보갑사(갑사)

옆막힘형 단령이며 쇠·길·무 부분은 안감과 겉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재봉되어 있다. 시접끼리는 눌러박기를 하였고 소매부분은 안감과 겉감이 떨어져 있고 재봉틀로 바느질한 겹단령이다.



단령

길이 121cm

화장 78cm

뒷폭 60cm

옆길이 93cm

소재 용보갑새(인견)

옆막힘형 단령이며 푼사로 자수한 쌍학홍배가 달려 있으며 재봉틀로 바느질한 겹단령이다.



원삼

앞길이 88cm
 뒷길이 112.5cm
 화장 89.5cm
 뒷폭 52.5cm
 소재 갑사(인견)

길은 녹색, 소매는 청, 홍, 황, 녹색
 색동, 한삼은 소색이며 안단에 남색
 선을 두르지 않았으며 금박장식 또한
 없는 민간 혼례용 녹원삼이다.



원삼

앞길이 103cm
 뒷길이 119,5cm
 화장 95cm
 뒷폭 68cm
 소재 모본단(사)

길은 녹색, 소매는 청·홍·황·녹색
 색동, 한삼은 소색이며 안단에 남색
 선을 두르지 않았으며 금박장식 또한
 없는 민간 혼례용 녹색원삼이다.



원삼

앞길이 95.5cm

뒷길이 119cm

화장 89cm

뒷폭 67.5cm

소재 갑사(인견)

길은 녹색, 소매는 청·적·녹색 색
동, 한삼은 소색이며 안단에 남색 선
을 두르지 않았으며 금박장식 또한
없는 민간 혼례용 녹원삼이다.



장옷

길이 124cm

화장 67cm

뒷폭 72cm

옆길이 92cm

소재 명주(명주)

조선시대 부녀자들이 외출할 때 얼굴을 가리기 위한 쓰개류의 일종이었으나 제주지역에서는 혼례복 및 수의로 입혀졌다. 형태는 두루마기와 유사하며 소매 끝과 깃에는 이색천을 덧붙였다.

상례복



제복(최복)

길이 85cm

화장 33cm

상중에 상주가 입는 옷으로 가슴부위에 최를 달았으며 최복이라 하는데 제주도에서는 제복이라고도 한다.



상

길이 98cm

폭 150cm

상중에 상제가 입는 치마이며 앞이 세폭, 뒤가 네폭인 치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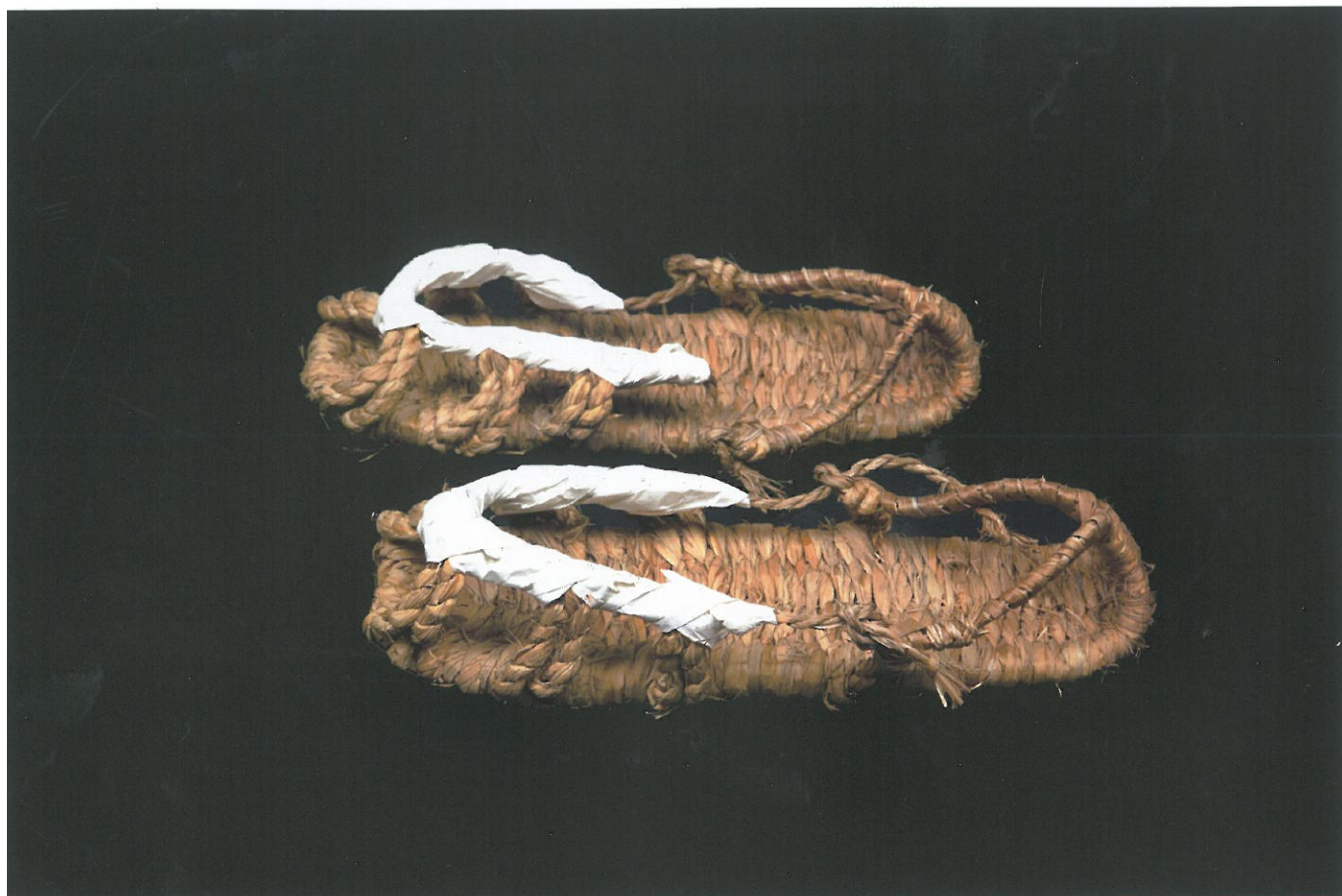


건대

직경 22cm

두께 2cm

상중에 여자상제가 머리에 두르는 것으로 삼을 꼬아 만들었다.



짚신

길이 27cm

폭 7cm

짚으로 엮어 만든 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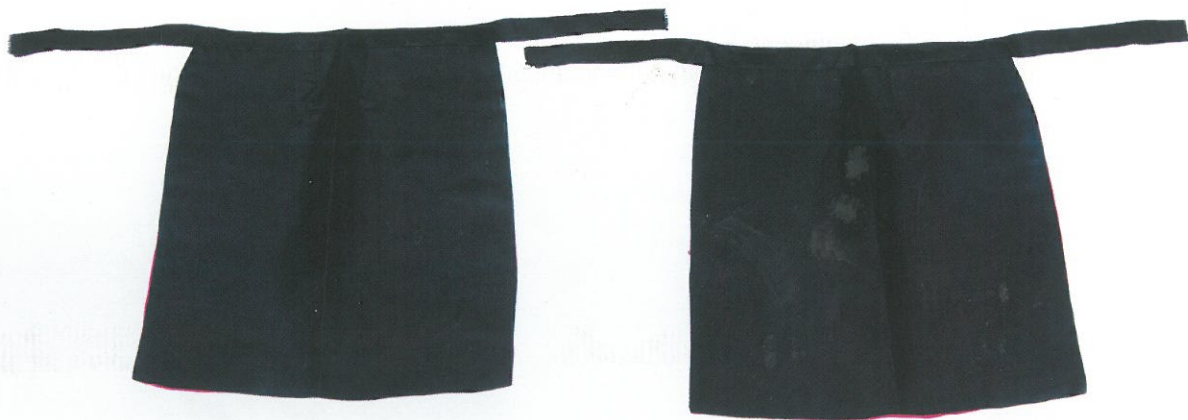


검은호상(먹목)

길이 33cm

둘레 82cm

시신의 얼굴을 가리기 위한 것으로
겉은 검은색, 안은 붉은색 명주로 만
든다. 안을 붉은색으로 하는 것은 후
손의 눈을 밝게 하기 위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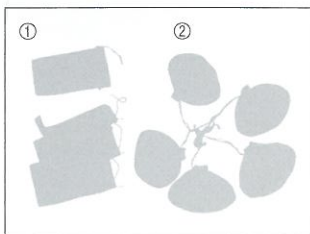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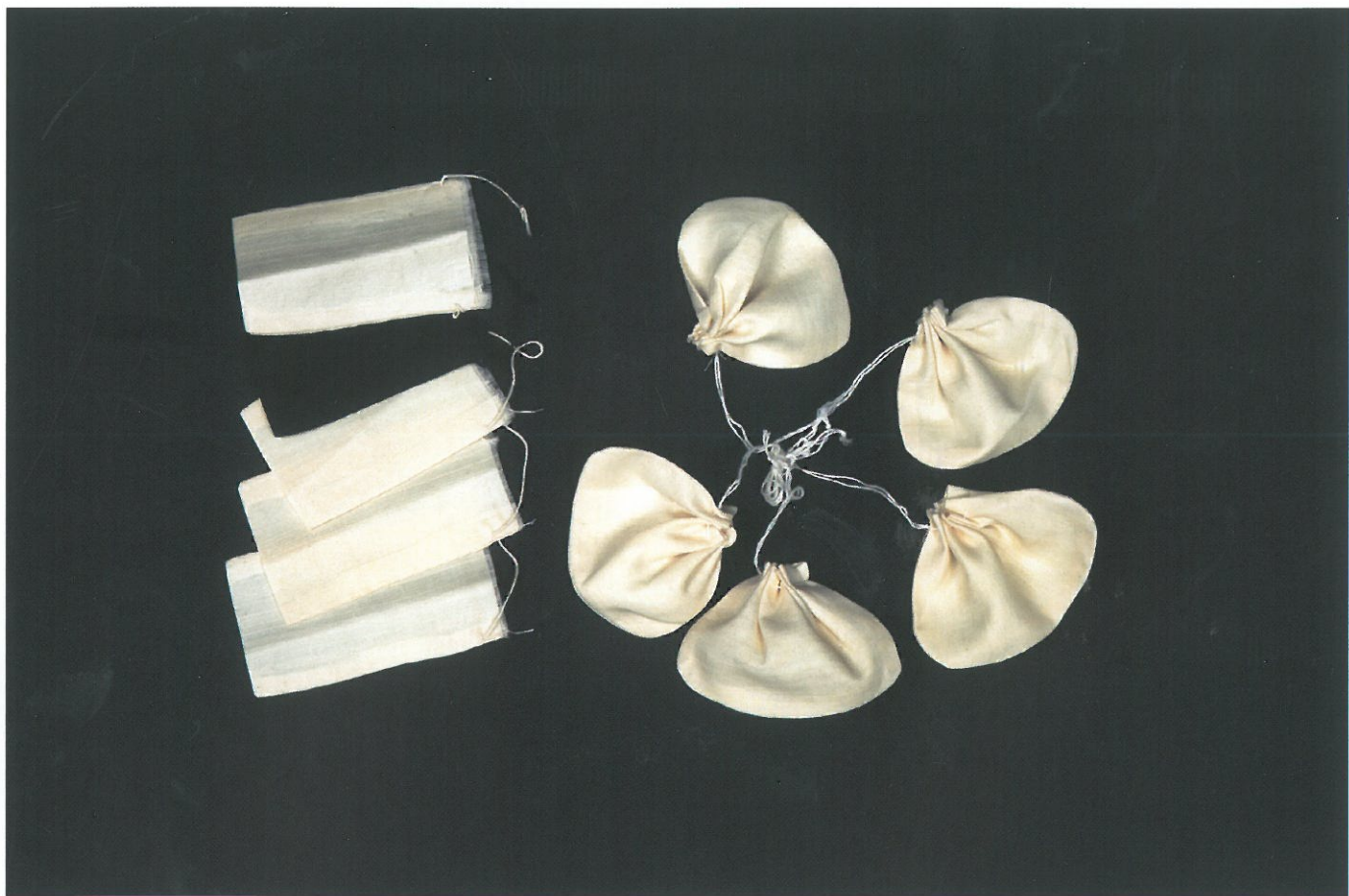


악수

길이 24cm

너비 23cm

시신의 손의 흐트러짐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손싸개이며, 제주지역에서는 검은색으로 만들었다.



소랑(오낭)

① 길이 7cm
너비 3.5cm

② 길이 5cm
너비 8cm

시신의 머리털과 손·발톱을 잘라 담는 주머니이다.



저승신(습신)

길이 24cm

너비 7cm

시신에게 신기는 신으로 바닥을 삼베로 한다.



목자복



가죽감태

앞길이 21.5cm

뒷길이 41cm

너비 41cm

소재 노루가죽

사냥할 때 방한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뒷길이 앞길이보다 길어 뒷목을 따
뜻하게 감싸도록 되어 있으며 귀 밑
으로 끈이 달려 있다.



가죽감태

앞길이 19cm

뒷길이 28cm

너비 25cm

소재 노루가죽

사냥할 때 방한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뒷길이가 앞길이보다 길어 뒷목을 따
뜻하게 감싸도록 되어 있으며 끈은
떨어져나간 듯 보이지 않는다.



털벌립

높이 10cm

너비 52cm

소재 소털

소의 털을 모아 축융시켜 펠트직으로
제작한 방한용 쓰개이다.



털벌립

높이 11cm

너비 50cm

소재 소털

소의 털을 모아 축융시켜 펠트직으로
제작한 방한용 쓰개이다.



가죽버선

길이 28cm

너비 30cm

소재 소가죽

바닥은 소가죽, 발목은 면으로 제작하였고 잘 헤어지는 부분을 튼튼하게 보강하기 위해 섯코와 뒷축 부분을 가죽 2장씩을 덧대었으며 가죽과 면의 연결 부위는 0.5cm 간격으로 면사를 이용하여 흠질하였다.



가죽버선

길이 23cm

너비 28cm

소재 소가죽, 면

앞코와 뒷축 부분에 가죽을 2장씩 덧대
어서 튼튼하게 보강한 가죽버선이다.



가죽신

길이 25cm

너비 7.8cm

소재 가죽, 면(고무)

전체 가죽으로 제작되었고 바닥은 면으로 덧대어져 있으며 신발 바닥부분은 고무를 사용하였다.



가죽신

길이 27cm

너비 10cm

소재 가죽

짚신처럼 신발 전체를 가죽으로 엮어 제작하였다.



가죽발레

길이 65cm

너비 23cm

소재 노루가죽

허벅지까지 오도록 입는 일종의 가죽
각반으로 사냥을 할 때 착용하는 겨
울철 방한복의 일종으로 두 개의 끈
이 달려 있다.



각반

길이 26.5cm

너비 40cm

소재 소가죽

종아리 형태에 맞게 소가죽으로 제작
하였고 뒤 전체가 트여 있으며 고리
로 연결하여 고정하였다.



주머니

길이 13.5cm

너비 16.5cm

소재 소가죽

부싯돌 등을 보관하던 주머니로 전체가 소가죽으로 제작된 두루주머니형 태이며 끈은 면실로 되어 있다.



주머니

길이 11cm
너비 6.5cm
소재 소가죽

부싯돌 등을 보관하던 주머니로 전체 소가죽으로 된 귀주머니형태이며 끈은 가죽으로 되어 있다.



주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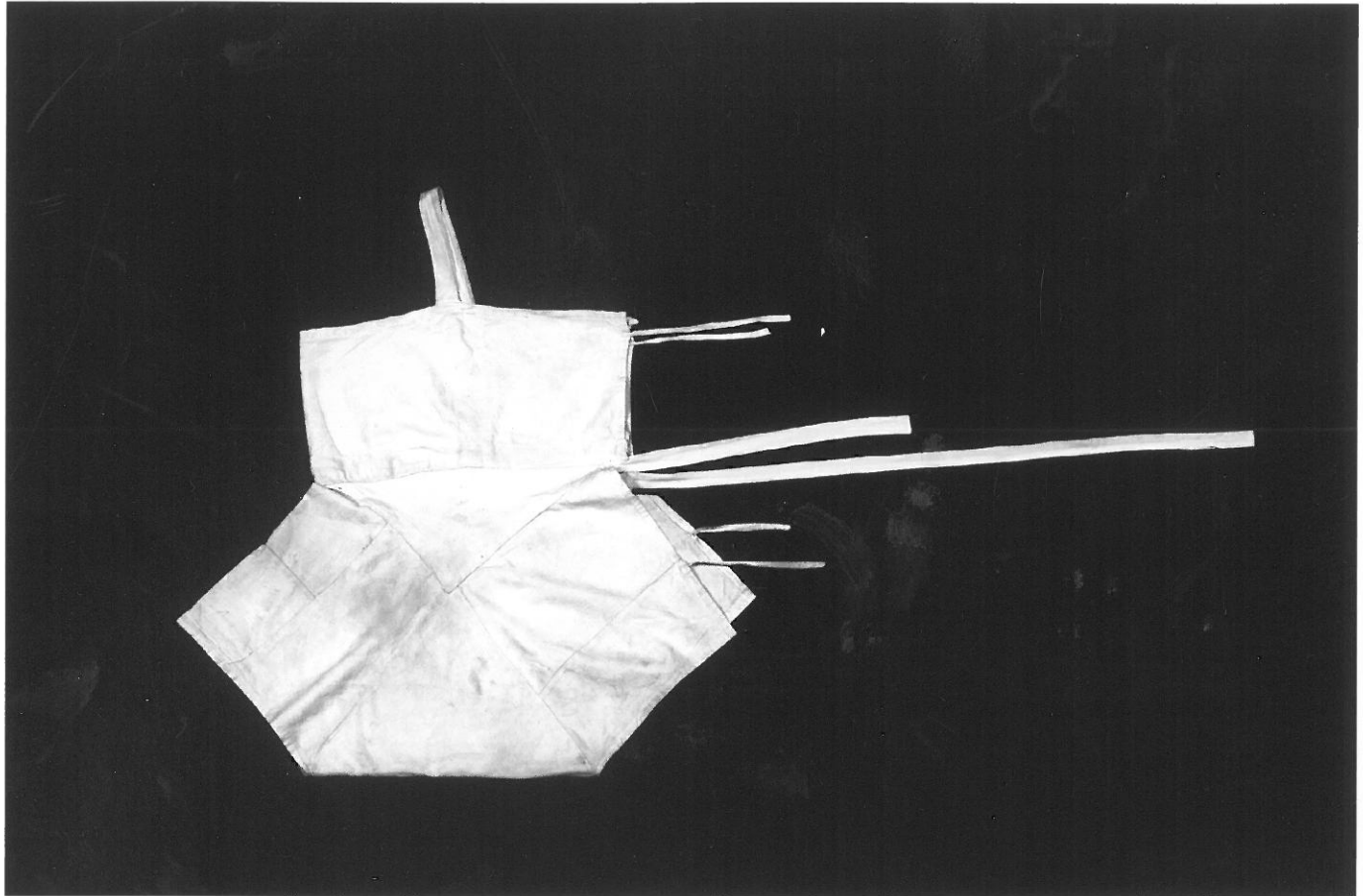
길이 43cm

너비 21cm

소재 노루가죽

봉제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다리
부분의 가죽을 그대로 사용한 주머니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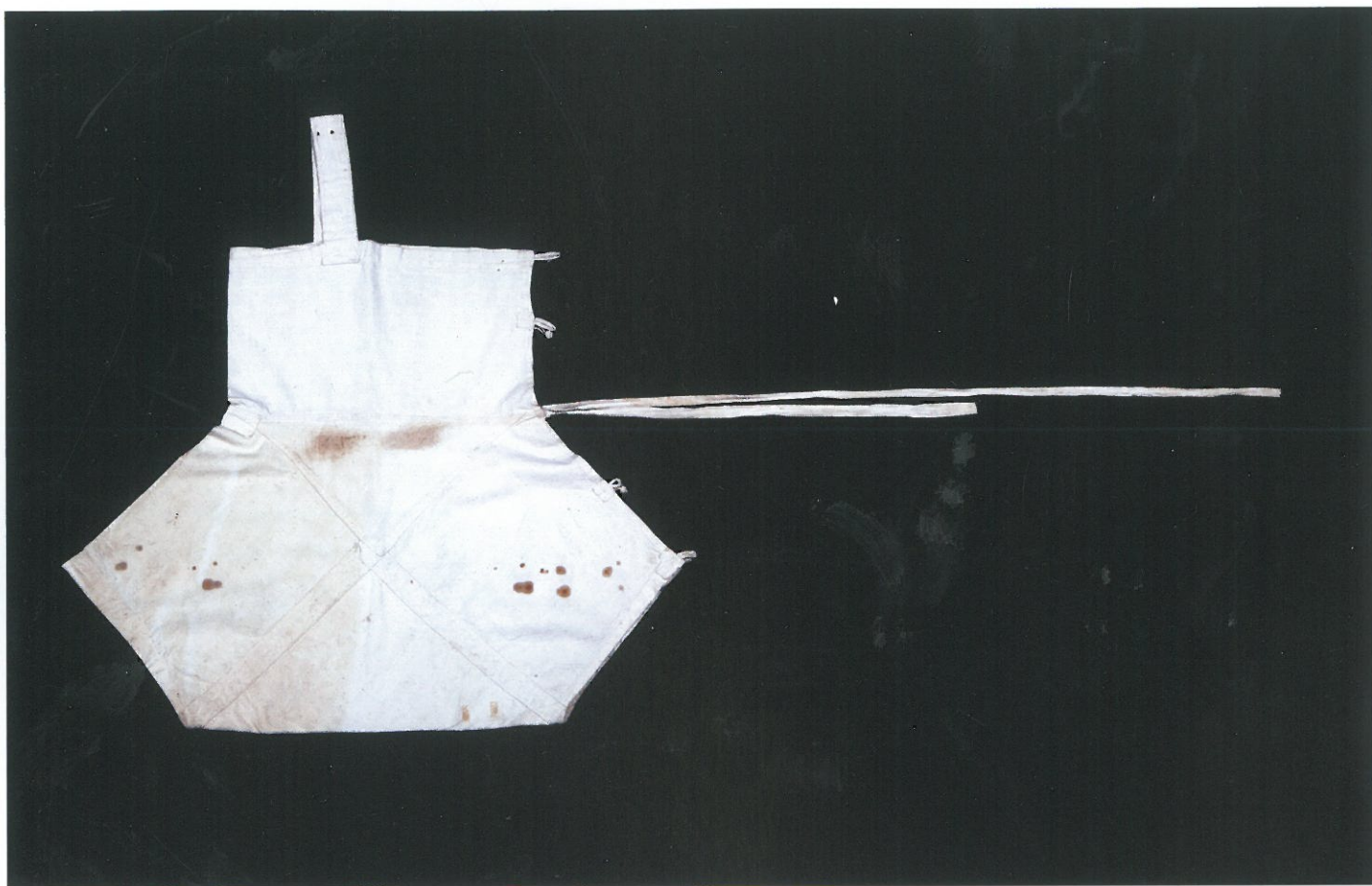
해녀복



물소중이

길이 73cm
허리너비 84cm
소재 면

어깨에 걸치는 끈이 있으며 옆으로
세 쌍의 끈으로 여미게 되어 있는 소
색의 물소중이다.



물소중이

길이 76cm
허리너비 80cm
소재 면

어깨에는 똑딱단추와 옆에는 한 쌍의 끈과 네 쌍의 매듭단추로 여미게 되어 있는 물소중이다.



물소종이

길이 76,5cm
허리너비 74cm
소재 면

한 개의 끈과 여섯 쌍의 매듭단추로
여미게 되어 있는 검정색 물소종이다.



족두리

지름 11cm
높이 6cm

조선시대 여성용 관모로써 종이로 두 겹께 배접하여 아래는 둥글고 위는 육각형으로 만들어, 다양한 장식을 한 것으로 원삼과 함께 사용했다.



화관

지름 8cm

높이 6cm

조선시대 여성용 관모로써 여성의 화려한 머리모양을 쪽머리로 고치면서 일반화되었다. 두꺼운 종이를 배접하여 각종 보석을 장식하여 화려하게 만든 것이 특징이다.



탕건

지름 18cm

높이 14cm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갓 아래 받쳐
쓴 말총으로 만든 건의 일종이다.



유건

높이 22cm

너비 26cm

조선시대 유생들이 사용했던 건의 일종으로 보통 검은색의 삼베·모시 등으로 만든다. 양옆에 끈을 달아 턱밑에서 묶어 쓰는 것도 있지만 끈이 없는 것도 있다.



정자관

지름 27.5cm

높이 19.5cm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주로 집안에서 망건이나 탕건위에 착용했던 관이다. 재료는 말총이며 산자모양을 2층, 3층으로 겹쳐 만들었다.



흑립

지름 33cm

높이 15cm

조선시대 사대부의 대표적인 관모로써 흑칠을 한 것을 말한다. 부위에 따라 대우와 양태로 구분되며, 시대와 유행에 따라 크기와 높이가 변하기도 했다.



망건

길이 58cm

너비 8cm

조선시대 남자들이 상투머리가 흘러 내리는 것을 막기위해 이마에 두르는 건이다.



남바위

길이 39cm

조선시대 남녀가 사용한 방한모의 일종으로 여성들은 앞 중심에 술·보석 등으로 장식하기도 했다.



풍차

길이 39cm

조선시대 남녀가 사용한 방한모의 일종으로 불을 감쌀 수 있도록 불끼를 함께 재단해 만들었다.



조바위

길이 19cm
너비 22.5cm

조선시대 이후 여성들이 착용했던 방한모의 일종이다. 정수리 트임의 앞뒤에 장식끈이나 매듭·보석을 달아 장식했다.



복건

길이 46cm
너비 22.5cm

조선시대 이후 미혼의 남성이나 유학자들이 착용했던 건으로 오늘날에는 남자어린이들이 돌복으로 착용하기도 한다. 한쪽의 옷감으로 뒤통수 부분은 약간 둥글게 하고 이마부분에 주름을 잡고 끈끈을 달아 뒤에서 매도록 한다. 각종 금박 문양을 장식해서 건강·장수 등을 기원했다.



화관과 땡기

길이 111cm
너비 32cm

화관의 끝에 땡기를 고정시킨 것으로
예장용으로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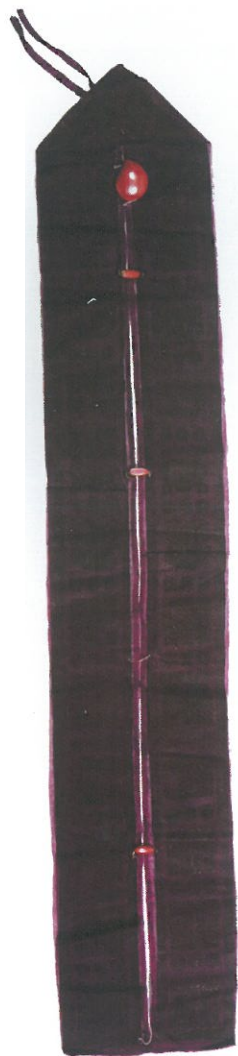


도투락 땡기

길이 115cm

너비 22cm

긴 땡기의 윗부분이 삼각형이 되도록 반으로 접은 것으로 신부의 예장용으로 주로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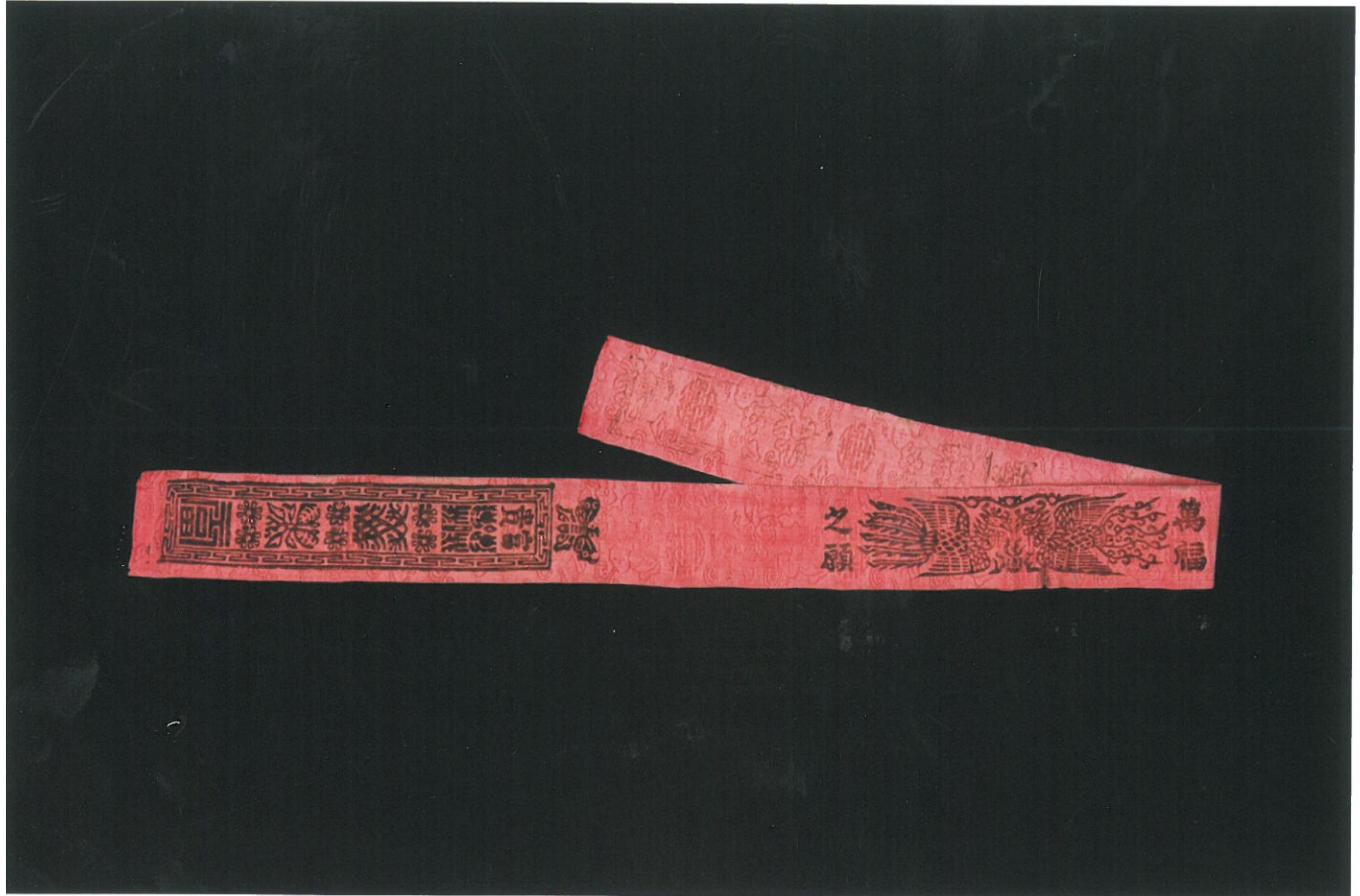


도투락 땡기

길이 125cm

너비 21cm

긴 땡기의 윗부분이 삼각형이 되도록 반으로 접은 것으로 신부의 예장용으로 주로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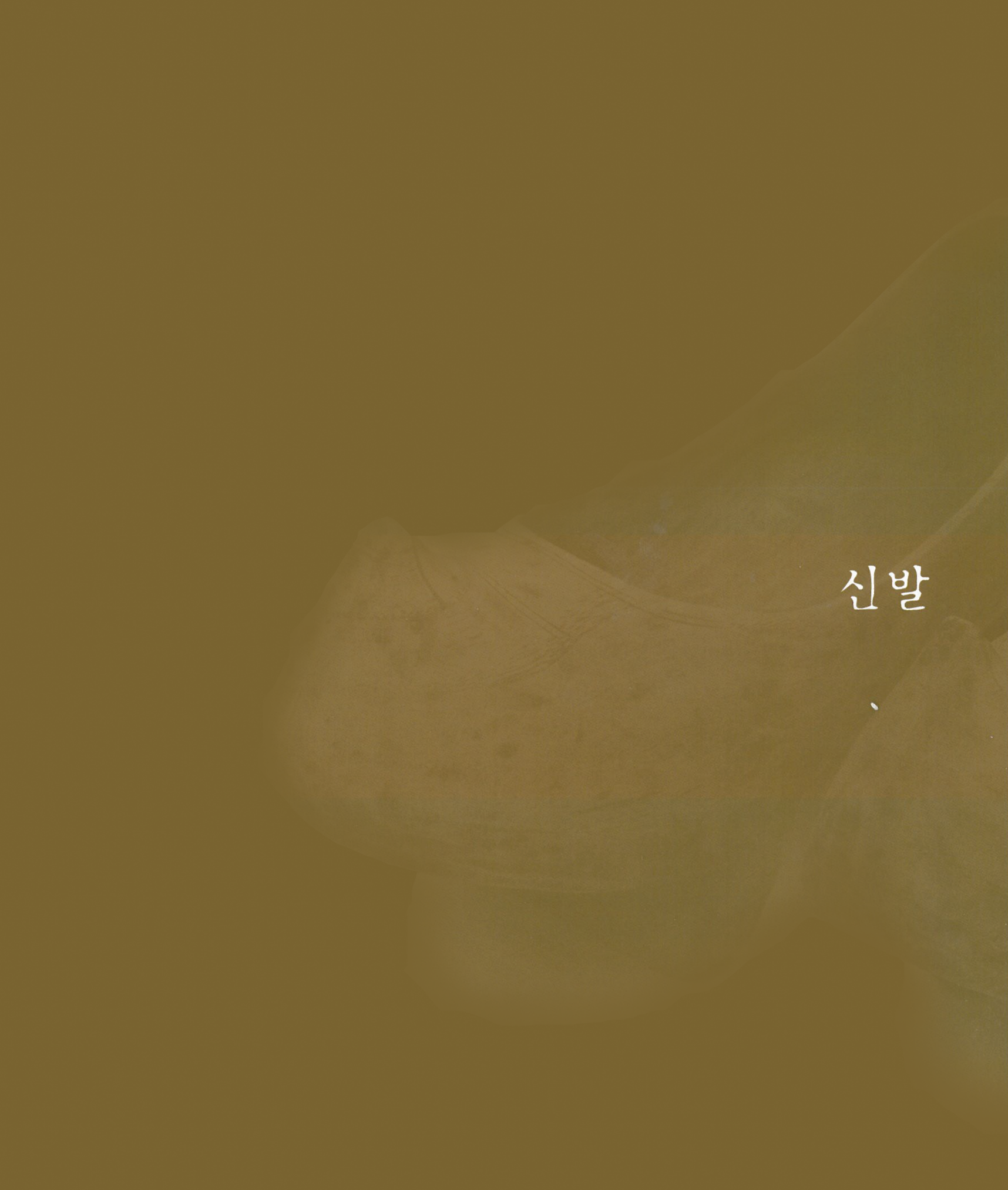


땡기

길이 107cm

너비 6.5cm

머리카락을 묶고 정리하기 위한 장식용 머리끈이다.

The image features a pair of traditional Korean shoes, known as gat, positioned diagonally across the frame. The shoes are light-colored with dark, thin laces. They are set against a background of a textured, light-colored surface, possibly a piece of fabric or paper, which is layered over a solid dark brown background. The lighting is soft, highlighting the texture of the shoes and the background.

신발



징신

길이 26cm

너비 8cm

높이 6cm

신 밑창에 징을 박아 만든 신으로 가죽을 들기름에 절여서 만들었다.



가막창신

길이 24cm
너비 6.5cm
높이 7.5cm

제주도에서 가죽으로 만든 여자 신발이며, '가막'이란 검정색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나막신

길이 29cm

너비 9cm

높이 14cm

나무로 만든 신으로 주로 비나 눈이
올때 신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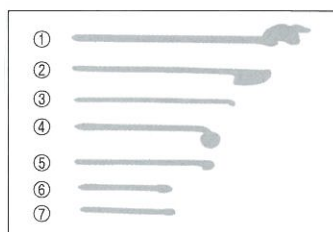
목화

길이 27cm
너비 9.5cm
높이 22cm

조선시대 사대부가 관복과 함께 착용
했던 신발이며, 오늘날에도 전통 혼
례시 단령과 함께 착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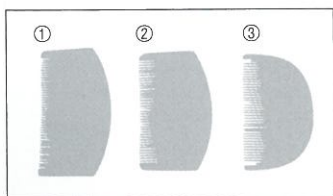
장신구



비녀

길이 ① 32,5cm
 ② 26cm
 ③ 21cm
 ④ 18cm
 ⑤ 17,5cm
 ⑥ 12cm
 ⑦ 11,5cm

머리를 엇거나 쪽을 진 후 머리가 풀
 어지지 않게 하고, 머리모양을 고정
 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장신구이며 다
 양한 모양과 재료로 만든 것이 있다.



얼레기

① 너비 5.5cm
높이 10.5cm

② 너비 6cm
높이 9.5cm

③ 너비 5.5cm
높이 1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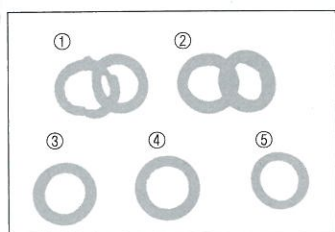
'챙빗' 으로 머리를 빗기전에 거친 머
리털을 빗는 빗이다.



빗치개 뒤꽂이

- ① 길이 17cm
너비 3.5cm
- ② 길이 16.5cm
너비 3.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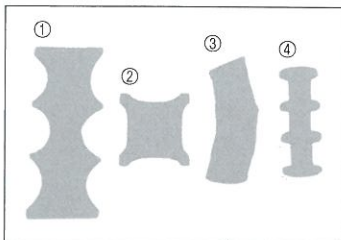
쪽진머리를 한 후 장식하기 위해
쪽에 꽂은 장신구의 일종으로 가
리마를 타는 등 실용적인 용도로
도 사용되었다.



가락지

- | | |
|------------------------|------------------------|
| ① 지름 2.8cm
두께 0.5cm | ④ 지름 3cm
두께 0.6cm |
| ② 지름 2.7cm
두께 0.8cm | ⑤ 지름 2.5cm
두께 0.5cm |
| ③ 지름 2.8cm
두께 0.6cm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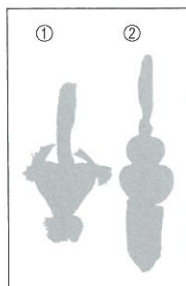
손가락에 끼는 장신구이며 금·동·옥 등을 재료로 만들었다.



바늘 도구(실패)

길이 ① 17cm
 ② 5.5cm
 ③ 13cm
 ④ 10.5cm

다양한 모양의 실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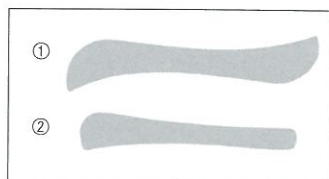


바늘도구(바늘꽃이)

① 길이 15cm
너비 6cm

② 길이 21cm
너비 5.5cm

바늘을 꽃아 보관하는 바늘꽃이이며
자수를 놓아 장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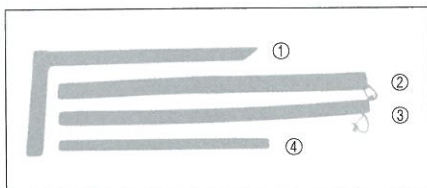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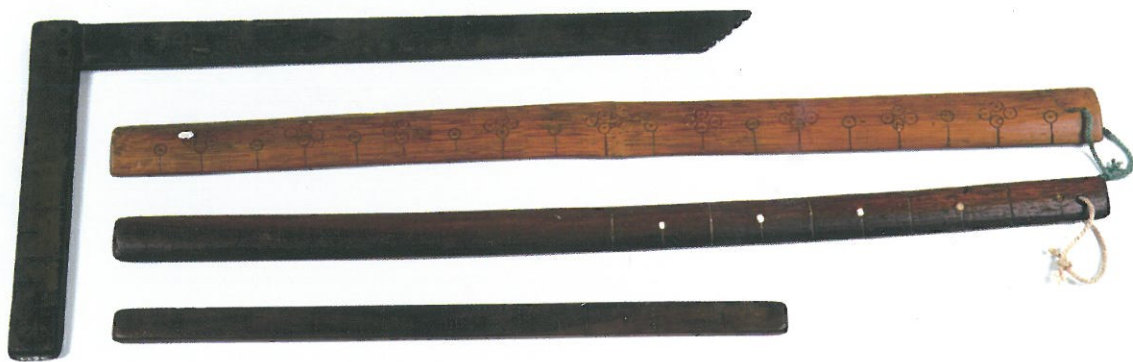


뼈인두

① 길이 15.5cm
너비 3cm

② 길이 13cm
너비 2cm

바느질할때 옷감에 시접선 등을 표시
하는 도구이다.



자

- | | |
|-------------------------|-------------------------|
| ① 길이 39.5cm
너비 2.5cm | ③ 길이 52.5cm
너비 2.5cm |
| ② 길이 53cm
너비 3cm | ④ 길이 35cm
너비 2.8cm |

길이를 측정하는 다양한 종류의 자이다.



귀주머니

길이 15.5cm

너비 18cm

아래의 양쪽으로 삼각형의 귀가 나온 귀주머니이며 돈이나 소품등을 넣어 허리에 차거나 들고 다니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홍배

가로 15cm

세로 17cm

조선시대 관복의 가슴과 등뒤에 달았던 것으로 쌍학홍배이다.



관대(각대)

길이 140cm

너비 4cm

관복에 두른 장식용 허리띠로 신분에 따라 재료를 달리했다.



타래버선

발길이 14cm

높이 17.5cm

수를 놓고 술을 달아 예쁘게 장식한
어린이용 타래버선이다.



털토시

길이 31cm

너비 15cm

추위를 막기 위해 팔목에 끼는 것으로
겉은 단으로 하고 안에는 따뜻하게
털을 대었다.

제주 전통복식에 관한 실증적 고찰

- 제주대학교 유물을 중심으로 -

장 현 주 (제주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1. 머리말

제주도는 지리적으로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으며 화산의 폭발로 생성된 지역이라는 점, 따뜻하지만 습기와 바람이 많은 해양성 기후지역이라는 점, 가뭄, 홍수, 바람의 삼재를 안고 사는 척박한 자연환경이라는 점에서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특징을 가진다. 이로 인해 의생활 역시 육지에 비해 다양하게 발달하지 못했으며 제주만의 독특한 양식이 형성되었다. 이렇듯 제주 복식이 다른 육지에 비해 독특한 양식을 이루게 된 것은 고립된 지형적, 환경적 영향 외에 또 정치적인 영향도 있었다. 고려시대 몽고의 점령과 조선 시대의 강력한 지방통치, 그리고 저명한 유학자들의 제주유배 또한 제주지역의 복식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즉 고립된 지형적인 여건과 박한 풍토 및 정치적인 수탈 등은 문화교류의 단절과 경제적 빈곤 뿐만 아니라 의생활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된 것이다. 그 중에서도 제주도의 의생활과 문화 전반에 걸쳐 커다란 영향을 준 사건은 조선시대 인조대부터 순조대까지 약 200여년(1629~1830)동안 내려진 도민 출륙금지령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왕족과 관련 있는 사람들조차도 제주도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육지로 갈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인적교류 및 문화의 단절을 초래하였으며 이로 인해 제주도의 폐쇄된 고유성을 더욱 굳히게 하고 문화의 낙후성을 초래해온 원인 중의 하나가 되었던 것이다.

점차적으로 사회기반을 갖추게 되면서 교역이 시작되고 상하층민간의 계급분화가 나타나게 되었으나 제주지방은 타지방에 비해 계급분화가 심하지 않아 의복은 서울에서 내려온 지배계층의 경기식 의복이 있긴 했으나 대부분 토착 서민들의 일상복 겸 노동복으로 입던 제주지방 토착복이 주류를 이루었다. 즉 제주의 전통복식은 일차적으로 제주도 토착민의 생활양식을 기반으로 하면서 외래적 요소가 융합되어 상류층에서는 관리의 복식과 의례복 양식이, 제주 토착민들은 생활여건에 맞게 고안하고 개발한 일상복 및 노동복양식이 융합되어 나타났으며 의례복보다는 노동복위주의 의생활이 크게 발달했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신생아 및 어린이복, 성인남녀의 일상복, 혼례 및 상례시 착용하는 예복, 목자와 해녀들이 착용하는 노동복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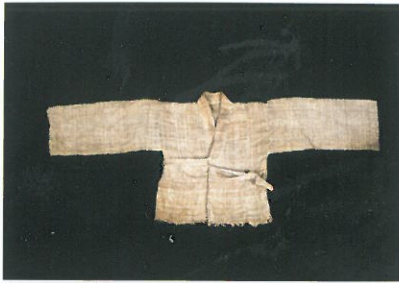
II. 유물을 통해 본 제주 전통복식의 유형

1. 일상복

1) 신생아 및 어린이복

비교적 열악한 제주도의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신생아 및 어린이복 역시 타 육지에 비해서 크게 발달하지 못했으며 남존여비사상 또한 만연하여 복식에 영향을 미쳤다. 아기의 태줄을 정리한 후 처음 싸는 포대기도 일반적으로 남성의 옷으로 짰으며 여자 어린이의 옷은 남아 동생에게 물려주지 않는 풍습이 있었다.

신생아 및 어린이복으로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1) 배두렁이

아기의 배를 따뜻하게 덮는 용도의 보온대이며 이것은 여름에 배탈방지를 위해 사용했다. 삼베로 만들었으며 어깨에는 끈고리를 달고 대의 양쪽에는 끈을 달아 여미게 되어 있다.



(2) 붓뒤창옷

예전에 제주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존비, 빈부에 상관없이 처음에 누구나 입었던 옷으로 육지의 배냇저고리에 해당한다. 집안에 이 옷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꼭 입혀야한다는 인식이 되어 있는 통과의례의 의미가 담긴 의복이다. 즉 아기가 태어나면서 약 15일~30일 동안 이 옷을 입히며 동생이 태어나면 대물림을 하였고 빌려준 뒤에는 반드시 회수하였는데 이것은 이 옷에 깃든 복을 간직하기 위함이다. 붓(褌:포대기 보)은 '태반 혹은 자궁'을, 뒤는 '자궁에서 떨어진 다음', 창옷은 '홀옷'을 의미하며 붓뒤창옷, 붓뒤적삼, 베옷, 삼칠일옷, 베창옷이라고도 했다.

소재는 계절에 관계없이 삼베이며 깃과 셔의 유무는 집안에 따라 다르며 소매는 삼베 폭을 그대로 사용하여 대부분 긴소매형태로 만들었다. 여밈은 고름 또는 무명실을 꿰어서 만들기도 했으며 이것을 한 바퀴 돌려서 여미었는데 무명실에는 장수를 바라는 염원이 담겨 있었다.



(3) 아기저고리

세이레가 지나 붓뒤창옷을 벗으면 무명이나 광목으로 된 저고리를 입는데 부유한 집안에서는 명주, 단, 생고사 등의 실크소재로 지어 입히기도 했다. 1900년대는 여성의 저고리길이가 가슴을 드러낼 정도로 짧아졌는데 이것은 여자어린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4) 색동저고리

제주지역에서는 비교적 보기 드문 어린 아이의 호사 옷으로 소매부분이 색동천으로 연결되어 있는 저고리이다. 셔부분에 조각천을 연결해서 장식

하기도 했으며 색동천을 사용하여 소매, 깃, 섶, 고름 등에 사용하기도 했다. 색동저고리는 어린이의 돌날이나 명절에 주로 착용하였으며 잡귀를 막고 아기의 건강과 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은 옷이다.

(5) 마고자

저고리 위에 덧입는 것으로 단추로 여미게 되어 있으며 소매부분에 색동저고리처럼 진동선을 따라 파이핑처리를 하고 색동천으로 만들고 섶은 또 다른 색으로 장식한 화려한 마고자도 있다.

(6) 풍차바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바지로 밑부분이 터져 있으며 조끼허리가 붙어 있는 형태와 허리말기만 붙은 형태, 어깨끈이 부착된 형태 등이 있다. 남녀의 구분 없이 모두 입었으며 조끼허리, 허리, 바지부리에는 모두 끈으로 여밀 수 있도록 되어 있다.

(7) 치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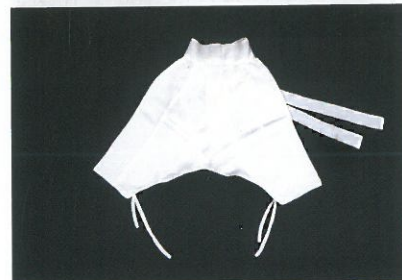
여자어린이가 착용한 것으로 활동하기 편리하도록 조끼허리를 부착하여 입기 편하게 한 통치마형태가 일반적이지만 어깨에 끈을 부착한 자락치마 형태도 있다.

(8) 까치두루마기

까치두루마기는 보통 오방색을 사용하여 만들며 일반 두루마기와 형태는 같다. 여자어린이는 깃, 고름 돌띠를 홍색이나 자색으로 하며 남자어린이의 경우는 남색으로 한다. 유물의 길은 분홍색, 소매와 안섶, 그리고 무에는 색동천, 그리고 고름은 녹색으로 하여 부위별로 다른 색을 사용했다.

(9) 전복

남자아이가 돌이나 명절날 두루마기 위에 덧입었던 예복의 일종이다. 깃





과 소매가 없고 옆과 뒤가 트여 있으며 남색의 길에 깃, 진동, 도련, 앞길 등을 따라, 글자문, 국화문, 쌍학문 등의 금박, 은박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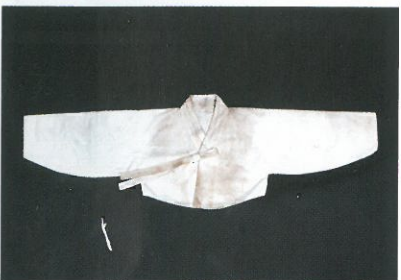
(10) 조끼

저고리 위에 덧입었던 것으로 단추를 달아 여미었던 겹옷의 일종이다. 겉감은 청색, 안감은 홍색으로 만들기도 했으며 앞길에는 국화문, 福字, 壽字와 같은 글자문, 편복문 등의 금박과 은박을 했다.

2) 성인남녀 생활복

(1) 여성복

제주여성들의 기본적인 복식은 저고리와 치마로 다른 지역과 차이가 없으며 다양한 속옷류를 볼 수 있다.



① 저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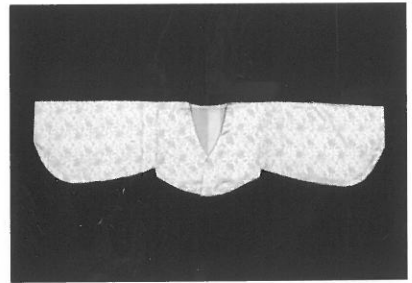
소재는 흰색의 명주, 삼베, 모시가 주류이며 향라, 단 등의 silk, 나일론 등의 합성소재도 많이 보이며 시대에 따라 저고리의 길이와 형태가 다소 차이가 난다. 일반적으로 1900년대~1920년대까지는 저고리길이가 20cm내외로 매우 짧아 가슴이 드러날 정도이었으며 1930년대는 저고리 길이가 다시 길어져 겨드랑이 밑이 7~8cm까지 내려갔고 진동이나 소매수구도 더욱 넉넉해졌으며 배래선이 뚜렷한 곡선을 이루었다. 1940년대에는 저고리 길이가 더 길어져 40cm내외로 배꼽을 덮을 정도이며 겨드랑이 밑이 10cm내외까지 내려갔다. 1950년대를 전후해서는 차츰 또 짧아져 30cm내외로 가슴 높이까지 올라갔으며 고름은 길게 달거나 브로치를 달기도 했다.

② 치마

소재는 저고리와 마찬가지로 면, 명주, 양단, 합성 등 다양하며 자락치마에서 통치마 형태로, 일자허리말기형태에서 조끼허리말기형태로 변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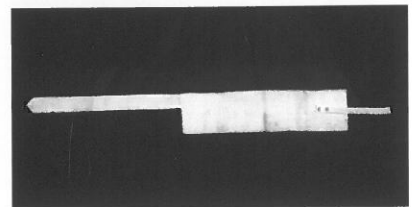
③ 마고자

마고자는 저고리 위에 덧입는 장식적인 겹옷이므로 대체로 고급 소재로 만들었다. 박물관에는 두 점의 유물이 있는데 한 점은 겹감에는 본견의 문단, 안감에는 본견 사를 사용했으며 또 한 점은 겹은 빨간색 양단, 안감은 녹색 명주로 만들었으며 두 점 모두 겹, 안감 가장자리 술기에는 새발뜨기로 돌아가며 장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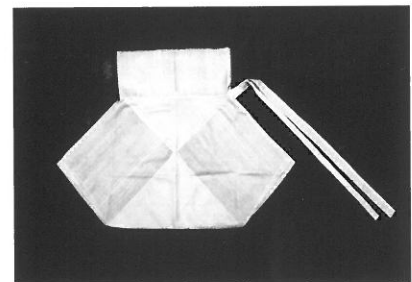
④ 가슴싸개

저고리 길이가 짧아지면서 가슴부분을 가리기 위해 사용한 속옷의 일종으로 면 소재로 누비거나 명주를 접으로 만들었다. 양옆에 끈을 어긋나도록 달아 여미기 편리하게 했으며 한쪽의 끈 길이는 상당히 길어 가슴을 돌아서 감싼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한쪽에만 끈을 달고 그 끝에는 고리를 만들어 놓은 것도 있으며 양쪽에 두 개씩의 끈을 달아서 서로 묶었던 것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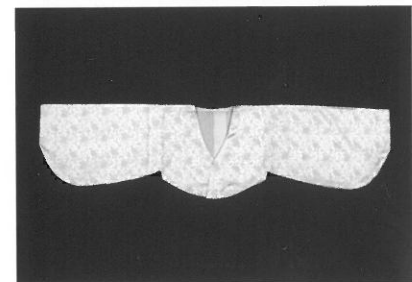
⑤ 소중이

가장 속에 입는 속옷으로 가슴부분까지 올라오지 않고 허리까지만 오게 하여 허리에서 끈으로 매도록 되어 있다. 한번 제작하면 체중이 변하여도 입을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일할 때에도 몸에 달라붙지 않고 통풍이 잘 되도록 고안되었다. 대부분 무명이나 광목으로 제작되어 졌으며 비교적 바닷가 여인들 사이에서 많이 입혀졌던 속옷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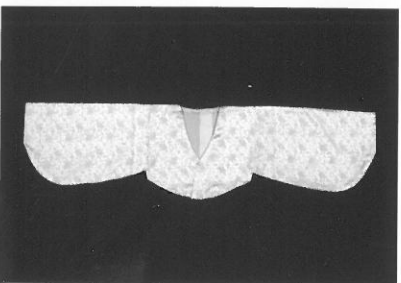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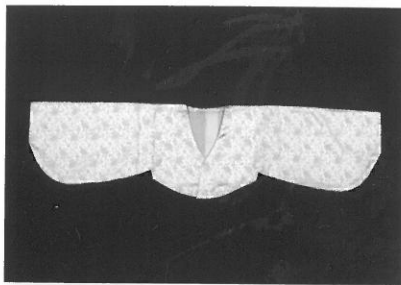
⑥ 다리속곳

가장 속에 입는 속옷으로 제주지역에서도 상류층에서는 소중이 대신 다리속곳을 입었다고 한다. 크기가 비교적 큰 속속곳을 자주 빨아 입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요즘의 팬티와 같은 역할을 했다.



⑦ 속속곳

다리속곳 위에 속바지 안에 입는 속옷으로 단속곳과 형태는 같으나 치수



가 단속곳보다 약간 작다. 허리끈으로 옆에서 여미는 옆트임형이 대부분이며 박물관의 유물은 양옆에서 여미는 양옆트임형이며 보통 살에 닿는 속옷이므로 소재는 옥양목, 광목, 무명, 명주 등이 많고 여름철에는 삼베, 굵은 모시, 안동포 등을 사용하기도 했다.

⑧ 속바지

밑 가랑이부위가 터져 있으며 부리는 좁고 전체적인 품은 대체로 넓은 편이다. 허리끈으로 옆에서 여미는 옆트임형이며 대부분 면, 명주소재의 겹바지이며 1cm 간격으로 누비를 한 경우도 있다. 개화기에는 허리에 고무줄을 넣어 끈을 없애 편리하게 하고 밑에는 트임을 없애는 개량형 속바지 즉 고장중이를 입기도 하였다.

⑨ 단속곳

제주지역에서는 굴중이라고도 불렸으며 바지위에 입는 속옷으로 지금의 속치마처럼 치마 밑에 입었다. 서민 여성들은 집안에서는 겹옷으로 입었고 넓은 바지부리를 대넒으로 묶어 일할 때 착용하기도 했다. 홀으로 되어 있고 밑이 막혀 있으며 양쪽 바지부리가 넓어 용변을 볼 때 바지가랑이를 치켜 올려 불일을 보았다. 무명, 광목, 명주, 모시, 삼베, 갈천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들었으며 이 중에서 갈천으로 만든 갈굴중이는 일반 서민들에게 많이 애용되었다.

⑩ 너른바지

치마 안이나 속바지 위에 입는 바지형 속옷인 점은 단속곳과 같으나 비교적 상류층의 부인들만이 착용한 것으로 보통 속치마 대용으로 착용하기도 한다. 대부분 밑이 막히고 바지부리가 상당히 넓은 형태의 바지이며 양옆허리에서 여미거나 한쪽 허리에서 여미도록 되어 있으며 소재는 면, 갈천 등으로 만든 것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비교적 곁에 입는 속옷이므로 실크 소재로도 많이 만들었다.

⑩ 처녀속곳 및 물맞이옷

저고리와 바지 혹은 조끼허리와 바지가 허리부위에서 연결되어 있는 원피스형 속옷이다. 저고리에 혹을 달아 여미거나 어깨에는 단추, 가슴부위에는 끈을 달아 여미는 형태이며 엉덩이 밑부분에는 바대를 덧붙여 놓았다. 6·25전쟁 직후에는 쌀포대으로도 만들어 입기 시작했으며 그 후에는 주로 면으로 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물맞이옷은 무더운 여름날 폭포의 물줄기를 맞으면 근육통, 관절염 등에 효험이 있다고 믿고 폭포아래서 물맞으며 착용했던 옷이다.

(2) 남성복

남성의 일상복은 기본구조가 저고리와 바지로 다른 지역과 큰 차이는 없다. 겹옷으로는 도포, 두루마기 등을 착용하기도 했다.

① 저고리

무명, 광목(개화기), 삼베, 모시, 생명주, 명주 등 다양한 소재로 만들었으며 겹, 홉, 누비 등 다양한 바느질기법으로 만들었으며 단추를 달고 주머니를 달아 활동을 편하게 한 개량 저고리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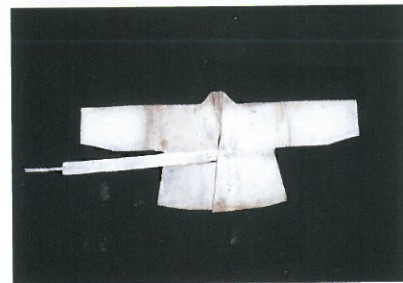
② 바지

소재는 저고리와 동일하며 유물은 모두 홀바지 형태이다.

③ 도포

조선시대에 도포는 사대부의 대표적인 포이며 임진왜란 전에는 고관들의 신분을 상징하는 옷이었으나 임진왜란 이후 서민을 제외한 유생과 사대부도 착용할 수 있었다. 깃이 곧고 무가 달려 있으며 소매가 넓으며 뒷길에 별도의 뒷자락이 달려있는 것이 특징이다.

제주지역에서는 관, 혼, 상, 제례 때 입혀져 왔으며 길복으로 주로 청색으





로 제작했으며 관직자, 권세가, 향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착용하며 향교의 제례, 유교식으로 치러지는 마을 포제 때에 청도포에 유건을 쓰는 풍습이 있다. 현재는 제복 및 남자의 수의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관디차림 즉 관복차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도포와 단령차림을 관복차림이라 일컬어왔다. 전통적인 관복이라 하면 흉배가 있는 단령에 사모관대차림이지만 제주지역에서는 신랑의 혼례복 및 무복으로 입는 관디차림은 대부분 단령차림을 말하며 제복으로 착용하는 관디차림은 도포차림과 혼용되기도 했다.

④ 두루마기

조선후기 고종의 갑신치제 개혁에 소매 넓은 옷(광수의를)을 폐지하면서 일상복에서는 도포 대신 두루마기를 신분의 구별 없이 착용하게 되어 오늘날 남녀 모두 외출복으로 두루마기를 착용하고 있다. 면소재의 겹, 홑두루마기, 명주 솜두루마기, 모시 두루마기 등 다양하게 있다.

2. 예복

1) 혼례복

혼례는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한 가정을 만들어 가는 과정 및 그 절차의 예를 말하며 1950년대까지는 대부분 중매로 이루어지는 구식결혼이 행해졌다. 이때 전통 혼례복으로 신랑은 사모관대, 신부는 장옷 및 원삼을 입었는데 서민들에게 귀한 혼례복은 보통 동네에서 계를 만들어 빌려 입기도 했다. 1950년대 이후로는 신식결혼이 행해졌는데 이 때 신랑은 양복차림을 하고 신부는 흰색저고리와 치마를 입고 흰색너울을 쓰는 차림을 했다.

(1) 신랑

구실결혼식 때 신랑은 사모관대 차림 즉 머리에는 사모를 쓰고 단령을 착용하는 모습이 일반적이다. 단령은 조선시대 관리들이 입던 상복으로 대개 쌍학 혹은 단학흉배를 부착하여 착용했으며 조선후기 일반 서민남자들에게도 혼례식때만 허용했다.

남색 곁감, 붉은색 안감, 두리소매, 쌍학흉배를 부착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유물 중에는 자주색 곁감에 흉배가 없는 것도 여러 점 있었으며 흉배를 옆으로 달아서 착용한 경우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머리에는 사모를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제주지역에서는 복건이나 남바위에 사모를 쓴 경우도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허리에는 각대를 둘렀으며 목화를 신었다.

(2) 신부

① 장옷

조선시대에는 여인들이 외출할 때 얼굴을 가리기 위한 내외용 쓰개의 일종이었는데 제주지역에서는 혼례복과 수의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독교를 타고 혼인을 치를 때인 1940~1950년대까지 착용했던 여자 혼례복으로 이 시기 최대의 정장차림이었다.

본래 장의는 두루마기와 비슷한 형태이며 짙은 초록색 바탕에 흰색 거들지를 넓게 달며 옷깃, 옷고름, 겨드랑이 무에는 자주색으로 했으나 유물에는 초록색 길에 적색의 소매단을 댄 것이 특징이다.

② 원삼

1940~1950년대를 기점으로 가마를 타면서 주로 착용했던 여자 혼례복이다. 녹원삼은 조선시대 공주나 양반부녀자들이 입었던 예복으로 조선후기에 오면서 서민들도 혼례 때 착용했다. 녹색 길에 적색 안을 대고 다홍, 청, 황, 녹, 자주색의 색동소매 끝에 흰색 거들지를 달았으며 뒷길이가 앞길보다



길며 깃 모양은 맞깃인 점 등이 특징이다.

2) 상례복

상례는 관혼상제의 의례 중에서 가장 엄숙하고 까다로운 것으로 상례복은 죽은 자에게 입히는 壽衣와 喪中에 있는 상제나 服人이 입는 喪服으로 구성된다.

(1) 수의

호상옷 또는 저승옷이라 하지만 대부분 호상옷으로 통칭된다. 호상옷 준비는 이 세상에서는 마지막이며 저승에서는 영원히 입게 되는 옷이므로 본인은 물론 자손들도 온갖 정성을 다해서 장만해야 했으며 잘 차릴 경우는 환갑 때 속옷에서부터 겉옷까지 전부 장만했다. 대부분 자손들이 부모의 환갑 때가 되면 마련했으며 특히 윤달이 좋은 날이라 생각하여 이때 대부분 장만하였다.

호상옷감으로는 명주나 삼베만을 이용했으며 무명, 모시, 화학섬유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무명은 시신이 썩을 때 새까맣게 되기 때문이며 모시는 자손들의 머리가 새치가 생기기 때문이라 믿었으며 새로 나온 화학섬유는 잡물질이 섞여 있어 썩지 않기 때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호상옷의 바느질은 정성이 담긴 손바느질이 기본이며 바느질을 할 때 매듭을 맺거나, 상침질, 뒷바느질을 금했다. 입관 후에는 저고리의 옷고름도 매지 않고 코를 풀어 놓았다.

호상옷의 치수는 보통 살아있을 때의 치수보다 크게 하는데 시신이 굳거나 부어서 입힐 때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호상옷이 모두 갖추어지면 입히기 편하게 아래옷은 아래옷끼리, 윗옷은 윗옷끼리 한데 모아서 징거둔다.

① 남자

상투머리에 삼베망건 그리고 검은 호상(떡목)을 착용하고 상의에는 속점삼, 저고리, 창옷을 입으며 하의에는 속중이, 바지, 허리띠와 대넒, 행전을 착용하며 겹옷으로는 도포를 착용하며 관직자, 권세가, 향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청색의 도포를 착용했다고 한다.

② 여자

상의에는 속적삼과 저고리를 하의에는 소중이(속속곳), 고장중이, 바지, 단속곳(굴중이)를 입고 그 위에 치마 2벌(청, 홍)을 차례대로 착용하며 겹옷으로는 장옷을 착용한다.

(2) 상복

상중에 있는 상주나 服人이 입는 예복을 말한다. 상복을 엄숙하게 갖추어 입는 것은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죽은 사람을 보내기 위한 산 사람들의 예의 표현방법이다.



① 남자

바지, 저고리, 소단, 중단, 직령, 제복을 갖추어 입고 머리에는 굴건, 허리에는 요질, 깃머선과 성글게 짠 짚신인 세각신을 신고 행전을 차며 아버지상에는 대나무지팡이, 어머니상에는 머귀나무 지팡이를 짚었다.

상복의 소재는 깃배, 깃무명, 깃광목 등 가공하지 않은 거친 옷감을 사용했으며 바느질 또한 시접이 겹으로 드러나며 아랫단도 꿰매지 않은 형태로 했으며 부판, 눈물받이, 적, 임 등을 달아 슬픔을 강조하는 형태로 만들어 착용했다.

② 여자

지도옷, 베치마, 흰저고리를 갖추어 입고 머선과 시각신을 신고 너울을 머



리에 두른다.

3. 특수노동복

제주인은 어려서부터 동생들을 돌보고 노동에 참여하여 왔으므로 제주인의 삶 자체가 노동의 연속이었다. 여성은 결혼 후 출산, 육아, 가사 뿐만 아니라 농사, 직조, 물질에도 종사하였으며 남성은 거친 바다를 항해하여 외지의 문물을 기꺼이 수용하고 가족을 위해 한라산의 광활한 목장에서 마소를 키웠으며 각종 짐승을 사냥하였다. 제주의 대표적인 노동복인 목자복, 해녀복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목자복

실제로 제주도는 자연적으로 목축에 적합한 환경일 뿐만 아니라 말의 생산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며 나라의 경제는 말의 수로써 결정한다고 믿으며 고려에 이어 조선시대까지 말 생산지로서 역할을 다하여 왔으며 말 생산에 종사하던 호수도 제주도 전체 호수의 1/4을 차지할 정도로 제주도의 말 생산은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중요시되어 왔다. 1700년대 제주도 내 각 고을을 순력하면서 당시 거행되었던 여러 행사장면과 자연, 역사, 산물, 풍속 등을 그린 탐라순력도에는 소, 말 등을 돌보고 있는 목자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현재 제주에는 갈적삼, 갈중이, 갈옷, 정동벌립, 털병거지 등이 목자복으로 알려져 있으나 예전에 목자가 한라산에 방목시킨 마소를 돌보러 갈 때는 추위와 갑작스러운 비에도 피할 수 있는 의복으로 가죽감태, 가죽두루마기, 가죽발레, 가죽버선, 가죽신 등을 신었으며 그 외 도롱이(우장)이라는 비옷을 갖추어 입었다.

① 가죽감태

주로 한라산에서 노루를 사냥할 때 추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착용한 모자의 일종으로 감태의 소재는 노루, 소, 개, 오소리 등 다양하게 알려져 있다. 그 중에서도 털이 부착된 오소리가죽이 가장 고급품이었으며 이것은 이 시기 富의 상징물로 여겨질 정도이었다. 유물의 형태는 뒷길이가 앞길이보다 길어 추위로부터 목뒤를 따뜻하게 감쌀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감침질방법을 사용해서 가죽을 단단하게 연결하고 있다.



② 털벌립

봄철 소와 개가 털갈이를 할 때 나온 잔털을 모아 깨끗이 빨아 말린 후 활로 튕겨 덩어리의 상태를 완전히 풀어낸 뒤 모자골에 맞춰 늘어놓고 열과 수분, 압력을 가하고 콩풀을 먹여 굳힌 뒤 펠트식으로 제작한 것이다. 제주도에서는 비오는 날 주로 쓰며 농부 및 군사들이 주로 사용한 챙 넓은 형태의 모자이며 털병거지, 털병것이라고도 한다. 어떤 비바람이나 압력을 가해도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따뜻하고 실용적이라 제주도민의 생활에서는 요긴하고 소중하게 사용되어졌다.



③ 정당벌립

비, 바람, 햇빛을 가리기 위해 댕댕이덩굴로 만든 제주도 고유의 챙 넓은 모자로 정당벌립이라고도 한다. 높이 약 11~15cm, 지름 약 50cm정도로 모자가 머리에 얹혀지게 만들어 상투를 보호할 수 있게 하였다.



④ 가죽버선

겨울철에 외출할 때와 농사일을 할 때 그리고 사냥할 때 신었던 것이다. 재료로는 노루가죽이 가장 좋고 망아지가죽, 개가죽, 소가죽이 주로 사용되었다. 털을 모두 제거한 가죽으로 무겁고 딱딱해서 옷으로 만들기에 부적합한 가죽을 소금에 절여 부드럽게 한 뒤 만들었으며 가죽버선을 맨발로 신게 되면 발이 갈라지고 트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죽버선 안 바닥에 짚을 깔아 신거나 짚신위에





신었다고 한다.

⑤ 가죽신

새끼줄 틀에 가죽을 연결한 형태를 말하며 제주도에서 사냥을 할 때나 말을 탈 때 가죽 버선 위에 덧신었던 것이다.



⑥ 가죽발레

겨울철 사냥을 할 때 착용하는 방한복으로 허벅다리까지 오도록 만든 가죽 각 반의 일종이다. <탐라순력도>의 명월조점, 서귀조점, 산장구마, 공마봉진 등의 그림에서는 상급관원도 아닌 제주의 목자들이 가죽발레를 착용한 모습을 볼 수 있으므로 가죽두루마기가 매우 귀한 옷이었음에 비해 이것은 비교적 흔히 사용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개가죽 두루마기와 가죽발레를 한 벌 차림으로 갖추어 입고 외출하였다고 한다.

⑦ 가죽두루마기

가죽옷은 제주도 개벽신화인 <三性神話>에도 유일한 옷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극히 근세까지도 사냥을 하는 제주도민들이 가장 소중하게 입었던 옷이다. 옛날에는 사슴, 노루 등의 가죽을 사용했던 것으로 전해지지만 근세에 입었던 가죽옷은 주로 마소를 돌볼 때 입었던 목자복의 한 종류로 겨울철 한라산에서 사냥할 때 입었던 개가죽두루마기와 소가죽 두루마기가 유물로 전해지고 있다. 유물은 현재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에 개가죽 두루마기 1점과 제주민속박물관에 소가죽 두루마기 1점이 전해지고 있다.



⑧ 갈옷

제주사람들의 삶은 그 자체가 노동이었다. 따라서 일상복은 노동복이며 그 중에서도 갈옷은 제주복식을 대변한다. 갈옷은 감물을 들인 옷으로 내구성, 강도, 통기성 증가, 자외선, 가시광선 차단성 높고 발수도가 향상, 방추도 감소, 세탁 및 일광건뢰도 증가, 의복 내 온도가 낮아지고 습도가 감소하여 여름의복에 적합하

다. 여기에는 갈적삼과 갈중이가 있다. 갈적삼은 땀바대라고도 하는데 땀이 흘러내릴때 입었던 옷으로 흘옷이며 삼베, 모시 등으로 지어 입었으며 갈중이는 갈점방이, 갈정벙이, 갈베중이 등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바지류이다.

2) 해녀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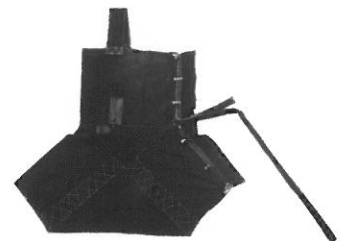
해녀복은 제주의 대표적인 직업여성인 해녀들이 물질할 때 착용한 옷이다. 이견(李健)의 <제주풍토기(1629)>에 “잠녀가 알몸으로 미역을 캐어—”라는 기록이 있는데 사실 알몸은 아니고 흰색의 흘겹으로 된 적삼과 속바지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흘겹의 삼베류는 물에 젖으면 알몸으로 보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 숙종 28년(1702년) 이형상 목사가 동성동본 및 친인척간의 혼인 금지와 함께 잠녀들의 작업시에는 수중 작업복을 반드시 착용할 것을 권장한 기록이 있다. 그리고 이형상 목사가 제주도의 방어, 군민, 풍속 등을 살피면서 순력하는 장면을 그림과 설명으로 표현하고 지도, 감귤, 목마, 산천 등에 대한 도면을 추가하여 만든 41도면과 2면의 서문으로 구성된 탐라순력도 병담범주에 용연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잠녀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흰색의 수중작업복을 입고 물질을 하는 잠녀들의 모습 옆에 잠녀라고 적혀 있다.

그 후 제주 해녀복은 제주 특유의 여성 속옷인 소중이에서 시작하여 물소중이 형태로 발전하였다. 처음에는 하의인 소중이만 입고 물질을 하다가 점차 상반신까지 가릴 수 있게 옷의 길이가 길어지고 어깨걸이를 단 물소중이를 입었다. 물소중이 위에 입는 물적삼은 1930년대 이후부터 입기 시작하였으며 1970년부터는 고무 잠수복이 입혀졌다.

① 물소중이

해녀들의 물옷으로 상체는 몸의 체형에 맞게 하고 하체는 밑바대를 바이어스로 재단하여 신축성이 있어 물속에서 활동해도 불편함이 없도록 고안되었다. 밑을 겹으로 하고 힘을 많이 받는 부분이나 이음선에 바대를 대어



견고하게 했으며 트임을 옆으로 하여 입고 벗기에 편하면서 신체를 다 드러내지 않도록 되어 있다. 트임에는 매듭단추를 달았으며 체형변화를 감안하여 매듭고리 길이를 길게 만들어 두어 조절 가능하게 했다. 각 가정에서 스스로 제작하여 손바느질 혹은 재봉틀 바느질로 제작되었다. 밑에 부분은 부분장식을 하기도 했는데 어깨끈 부분과 옆트임이 있는 쪽의 옆단에 스티치를 박아서 문양을 내든지 조각형絞을 이용해서 포인트를 주었다. 한쪽 어깨에만 끈을 다는 형태와 조끼허리를 만들어 밑부분과 연결한 형태가 있다. 색상은 흰색 혹은 검정색이며 소재는 무명, 광목 등의 면을 사용했다.

② 물적삼

해녀들이 추위와 햇빛을 막기 위해 상체에 입는 저고리의 일종이다. 형태는 적삼과 셔츠의 복합 형태를 보이며 대부분 소매부리와 도련에 끈이나 고무줄을 넣어 몸에 꼭 맞게 조여 물속에서 벗겨지지 않도록 하였으며 단추로 여미게 되어 있다.

III. 맺음말

이상에서 제주의 전통복식을 일상복, 예복, 노동복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제주인의 일상적인 삶은 이미 알려진 바대로 노동의 연속으로 일상복이 노동복화되었으며 제주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노동복의 발달을 큰 특징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통과의례를 치를 때 착용하는 예복은 갖추어져 있었으나 육지에 비해 종류가 다양하지 않고 형태 또한 비교적 단조롭고 장식 또한 소박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제주의 의생활은 기후와 생활방식 및 여건에 맞게 제주고유의 형태를 유지한 일상복, 노동복이 발달했으며 또 한편으로는 양반관료를 중심으로 한 육지에서 들여온 의례복 형태가 공존했다. 단지 양반관료를 중심으로 한 의례복은 관혼상제 등 유교의례에서만 극히 제한적으로 나타나며 이것 역

시 양반선망의 풍토에서 비롯된 것으로 현 실정에 맞게 다소 소박한 형태로
의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순제 외(2005). 한민족역사문화도감 의생활. 국립민속박물관
고부자 외(1996). 제주문화 자료총서 4, 제주의 민속 IV, 제주의 민속 의생활(편). 제주도
고부자(1986). 제주도연구 3 제주도 여인들의 속옷에 관한 연구
고부자(1995). 제주도 의생활의 민속학적 연구(1995).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국립제주박물관 편저(2002). 제주의 삶, 제주의 아름다움. 통천문화사
문순덕(2004). 제주여성 속담으로 바라 본 통과의례. 제주대학교 출판부
민속원(1992). 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 제주도 조사자료 제19편
부애진(1990). 제주지방 민속복인 노동복의 제작기법에 대한 연구 -갈옷과 해녀복을 중심
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북제주군(2006). 북제주군지
제주도(1993). 제주도지
제주도(1996). 제주문화자료총서 4 제주의 민속IV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제주도(1996). 제주의 민속
제주도(2001). 제주문화자료총서 8 제주여성문화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2001). 사진자료집
제주도연구회(1985) 제주도연구 2-12 고부자 제주도민의 상례에 나타난 복식 -호상옷과
상복-
제주문화(2000). 고찬화 편저, 탐라사자료집록
제주시탐라순력도연구회(2000). 탐라순력도연구논총
진성기(1979). 제주민속의 몇. 열화당
진성기(2003). 제주민속의 아름다움. 제주민속연구소

服飾

제주의 복식

The dress and it's ornament of Jeju



9 6 3 8 0

978-89-6208-0292

ISBN 978-89-6208-0292